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國民政府態度 豫想以外로强硬

川越高宗武、須磨吳鼎昌會見으로判明

川越大使訓電要請

【南京二十九日發同盟】昨日川越大使 高宗武氏의 會見及今日須磨總領事와 吳鼎昌、張公權兩部長과의 會見에依하야 中國側의態度는 意外로强硬하며 또今日의 行政院會議에서 觀取할수잇는 國民政府 部內의 空氣는 意外로險惡하야 이대로 나간다면 重大破局에 當面할 情勢에잇스므로 日本側이 이대로順順히 기다린다는 것은 中國側의遷延策에 陷하는것이므로 中國側의 誠意잇는 態度表明을 嚴重要求하는 同時에川越大使는 本省에對하야 그取할바軍大方策에 關하야請訓하엿다

(寫眞은 蔣介石氏)

須磨總領事 中國側에猛省促進

【南京廿九日發同盟】須磨總領事는 二十九日午後五時 實業部에 吳鼎昌部長을 訪問하고 蔣介石氏의 對日態度及 二十九日의行政院會議結果를 聽取하는同時에 現下急迫한 事態에 中國側이또 內部的事情에 禍되여 明確한態度決定을 하지못하고 부지럽시 遷延策을 弄하고잇는 不誠意를 指摘하야 日本側의 强硬方針을거듭說明하야 國民政府의 猛省을促하고 會見一時間半에辭去하엿다 다음 須磨總領事는 鐵道部長張公權氏의 要求에依하야 午後八時鐵道部官舍에 張公權氏를訪問하엿는데 張部長은 中國側當局의苦衷을 縷縷說明하야 日本側의諒解를求하는바잇섯는데 須磨總領事는 同樣 日本의毅然한態度를說明하야 中國側의猛省을促하엿다

始政記念日 官廳學校全部休業

十月一日은 朝鮮總督府始政記念日임으로 總督府以下各官廳學校는 例에依하야 全部休業한다고한다 또各官廳은 十月一日부터 執務時間은 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까지로 變更되는데 當日은休日임으로 二日부터實施된다

抗日政策是正通告 橋本駐屯軍參謀長談

【新京廿九日發同盟】關東軍 高級幕僚會議에出席한 橋本中國駐屯軍參謀長은 會議終了後如左히 말하엿다

全中을通하여 抗日不祥事件이 續發하야 日中關係는 益益險化形勢에잇다 此等不祥事件은 南京政府가 日本에對한認識을 곳치지안는限 根絕할수는업다 中國駐屯軍은 關東軍과가티誠意를보아서 南京政府의抗日政策을 是正하게希望을通告할豫定이다 全中에亘한抗日不祥事件은 北中에서도 그餘波가波及하고하는데 此際에北中將 旣定方針을 斷然히 南京政府에 認識시킬必要가잇다 北中明朗化에對한 日本國民의 熱望은 熾烈하다 北中民衆이 眞實로 日中親善이 될수잇도록 我等은 努力하다

蔣介石氏全國에 外人保護를嚴命

【上海三十日發同盟】蔣介石氏는 二十九日 全國各省市政府에 對하야 在中外國人保護及 地方秩序維持에 關하야 如左히嚴重命令을 發하엿다

國家統一의 基礎가 漸次安定되어가는이때 不逞徒가 秩序를攪亂할라하야 各省市에潛入하고잇다는 報가잇다 萬若此等을 防止치안코 事變을發生시키면 大局에 影響하는바甚大하다 따라서 各省市에서는 所屬軍憲에 命하야嚴重防壓의 方法을 講求하고 同時에 民衆에도 이意를 悟토록 秩序維持에 協力하라

蔣氏歸京說은誤報

【上海二十九日發同盟】上海方面에傳한 蔣介石氏의 南京入은調査한結果 誤報로判明되엿다

磯谷局長車中談

【東京電話】日中關係險惡化에따라 大演習地出張을 延期하고잇던 磯谷軍務局長은 二十九日午後七時 上野發 北海道에向하야 大演習地에서 寺內陸相에日中問題의 詳細한經緯及 陸海軍當局의 斷乎한强硬方針에 對하야 報告하게되엿는데 車中如左히말하엿다

對中問題에對한 大體方針이 決定되엿스므로 出發한것이다 大臣보다 조곰늦게 來月十日歸京할豫定인데 事態如何로는途中歸京할지도모른다 對中問題其他에 對하야는 旭川에到着하는대로 大臣에 詳細報告하는機가되엿다 對中問題에對하여는 各種會議한結果인데 根本解決의 第一段階는川越大使 蔣介石氏會談이므로 其他折衝은同等價値가업다 또이會談은 豫備를 交치안코 어데까지던지 一對一로 折衝하여야 할것이다 蔣介石氏가 誠意잇는 態度를 示하지안는때는 勿論이고 表面誠意잇는態度를 示한다하더라도 實行이 이에相伴치안는때는 日本은 그를是正하고야말 決意를 가지고잇다 이點은 陸海外三當局間에 完全한 一致를 보고잇다 그러나 實行準備는 이미 完了되엿다 內閣機構改革에 對하야는 大演習出發前 陸海兩相共同으로 提案한것은 事實이다 이에對하야 一部에서는 依然히 保案으로보고軍事條約의 獲得手段이라고하며 或은이를 政府가實行한다면 豫算에 折衝을 加한다는等 各種의데마가 잇는데 豫算과이것과는 全然別個이고 따라서어느便이 可決되거나 못되는者가잇다면 어느便이나 다共倒하다고할것이다 또再言할必要도업시 內閣機構改革에 關한軍의 要求는 至今도 實行되여야할 것이다 明年度에 實行할수업는고로 明年度中에 實行할것을 要望하는 바이다 이에對하야 어떠케 批評하던지 事實上 明年度에 實行할수업는것도 잇슬것이다 그러나 實行치아니하면 아니되는것은 熟知하고잇다

道外事課長과 警務關係異動

外事警察擴充에 依한 京畿、北南警察部에新設한 外事課長과 警部二名任命에 伴한 警務關係의 異動은 이미內閣에 提出中인데 陸軍大演習으로말미아마 正式手續이遲延되여 來十月十五日以後에 異動發令을볼터이고 그前에는 各道警察部課長級六、七名에 그칠豫定이다

豫算其他關係로 省廢合은不可能

無任所相設置는實現有望

內閣機構改革問題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問題는 陸海軍兩相의 正式提案에 依하야 依然 表面化하엿는데 廣田首相은 元來軍部의 提唱과 가튼 內閣制度改革을 斷行할意圖는 가지지안헛스니만치 이問題處理에 對하야는 極히 苦慮하고잇다 政府로서는 이미問題가 表面化하게된 以上 從來의 默殺主義敬遠主義는 許할수업스며 愼重且眞劍히 機構問題를硏究할모양이다 然而 政府로서는 假使 內閣制度改革斷行을 要望한다하드래도 省의廢合과가튼것은 組閣當時라면 或모르지마는 組閣後 이미半歲以上을 經한今日 그리고 明年度豫算編成과倂行하야 只今곳 實行하기는實際問題로서 到底히 不可能하므로 豫算完成後 다시 內閣總辭職을 行한後가 아니면 實行不可能狀態에잇다 廣田首相은 大演習終了後 再次 陸海兩相과 會見하고 이點에關한 軍部側의 見解를 다시한번 質問하게될 模樣인데 軍部側이 어듸까지든지 即時斷行을 迫하는時는 內閣의運命은 곳重大하게될는지모른다 그러나 一方國策綜合統制機關의 擴大强化와 無任所相設置라면 豫算編成과 倂行的으로實現할수잇는 可能性이 充分하야 그實現性은 省의廢合에 比하야 매우 容易하므로 軍部가 即時實行을 要望하는境遇에 政府는 于先 이點으로부터 着手하려할 意向으로보이며 無任所相設置에 關한限 軍部兩省의 提案을 契機로 急速히 具體化할것으로 보인다

行政機構改革의 公正會의委員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公正會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昭和會館에서 行政機構改革에關한 委員會를 開催

一、內閣에關한問題
(一) 副總理格無任所大臣 設置의可否
(二) 國務大臣實數過多의可否
(三) 國務大臣과 行政長官과의 分離의可否
(四) 調査局擴大强化의可否
二、各省에關한問題
(一) 省의分立多岐를 廢合하는可否
(二) 航空省設置의可否
(三) 遞信鐵道及 土木局等을 倂合하야 交通省設置案
(四) 衛生局設置案
(五) 拓務省廢止의可否
(六) 國體明徵의 根本主義로서 神祇院의 特設案

等에對하야 各種意見交換을 行하엿는데 副總理格無任所大臣設置에 對하여는 要컨대 各國務大臣을 充分牽制할수잇고 手腕識見잇는 總理를가진 內閣에서는 無用하다는 意見이 一致하엿다 次回는 十月中旬開催 地方監督機構問題 地方行政機構改革問題等에對하야 意見交換을 續行할터이다

國民政府改悛限 交涉前途는困難

【上海三十日發同盟】最近中國各地에 頻發한抗日테로는 南京政府의學生一般大衆에對한 抗日宣傳敎育의 徹底한結果 惹起된것이明瞭한데 川越大使는 目下重大한決意로 日中國交調整交涉에 關하야 蔣介石氏와直接交涉을開始하고자 蔣介石氏歸京을熱望하고잇는데 中國側은 國府要人으로하야금 須磨南京總領事를 通하야 日本의態度緩和를 懇請하엿다 一方國府部內에는 依然歐米依存主義를 固執하야 强硬을策하는 分子가잇서 行政院內는 意見이 對立되고 統制할수업는混亂狀態를 暴露하여 交涉의 前途는 晴朗치안흔데 中國一流의 宣傳外交는 今回抗日테로 事件의 動因인 國府의 抗日敎育 宣傳의 責任을不問에부치고 抗日테로는 共産黨의策動이라고 或은 反府分子의 行動이라고 宣傳에 沒頭하고잇는故로 中國智識階級은 이를信任하는것은 勿論 日本朝野一部에서도 宣傳에넘어가서 이를 信用하는者가 漸出한다고 傳한다 國民政府가 今後如斯한 疑惑的宣傳을 繼續하야 不誠意를 改悛치안는限 交涉의 前途는 漸漸困難을 加하야 有田外相이期待하는 局面打開의 實現은 바랄수업고 事態는 오히려 惡化할憂慮가잇다

白耳義首相 波蘭을訪問

【월소廿九日發同盟】白耳義首相 이산케르氏는 二十七日 월소에到着 波蘭朝野各方面과 頻頻히意見交換을 行하고잇다 同氏는 兩三日滯在 最近成立한 白波通商協定實施調整에 關한協議를할것으로 解釋된다

『某國好戰的行動』 中國代表가指摘

聯盟總會의顧氏熱辯

【주네브廿九日發同盟】國際聯盟總會는 二十九日午後三時開會 一般討議에 드러갓는데 墺太利代表 슈밋트外務次官은 國際聯盟規約과 베르사이유條約을 分離할것을 主張하야 다음가티 述하엿다

墺太利政府는 一切文明諸國과 隣接諸國과 協力을維持하면서 어데까지던지 自國領土의 保全을 期한다 歐羅巴平和를保障함에 國際聯盟은絶對不缺한 機關인것은 再言할必要가업다 目下國際情勢에서 聯盟을 改組하는것은 妥當한事이다 但聯盟規約과 베르사이유條約 其他平和諸條約으로부터 分離하는것을 主張한다 또聯盟本來의 機能을 充分發揮하기爲하야는 聯盟以外의 諸國을 再次聯盟에 召致하여서는 아니된다 墺太利政府는 聯盟活動에 對하야 强力性을 與할必要가잇다

다음 中國代表 顧維鈞氏는 『某國의 好戰的行動』이 極東平和를 阻害하고잇다고 强辯하고 中國의 財政經濟再建工作은着着進捗되고 國民政府、西南派合作에依하야 國內統一大業을完成하엿다 그러나 某某國의好戰的行動은 近來急激히露骨化하야 國境附近에잇는 軍隊行動 軍艦派遣 國境紛爭 不法攻擊等等에따라 極東情勢는이제極히 不安에 陷하엿다

다음 체코슬로바키아代表 호다氏登壇 小協商國을 代表하야 다음가티 述하엿다

國際聯盟은 數年間幾多의 困難에 遭遇한 小協商國은 依然聯盟改組를 外交政策의 基調로한 一般國際軍縮會議의 再開에 對하야는 軍備競爭의 現狀에 鑑하야 軍備制限에 努力을 集中하는것을 要請한다 『適用不能에陷한條約』의 再審議에關한 規約第十九條를 活用치안흐면아니된다는 主張도 關係各國의 自由意志로 하지안코 現行條約을 改訂하는것은 反對이다

十月二日附本紙 朝刊臨時休刊

十月一日은 始政記念日로 官廳銀行會社學校가 全部休務함으로 本紙도 十月二日附朝刊 四面만 臨時休刊하고 當日附夕刊을 發行하겟삽기 玆에謹告함

朝鮮日報社

八面鋒

◇『프랑』이 金本位라는 그물을 벗서나더니、『길다』가뒤를따르고、瑞西프랑이 쪼차가고。
◇ 시침을뚝따고 견딜것이 버리던馬克이 平價를切下하고、留가그길을도밟으라하는눈치。
◇ 金本位離脫이니 平價切下니 하는말은 財政家나 金融家의 專門用語이어니와、
◇ 돈스갑이 헐해지고 物價가 놉하진다는것만은 一般의生活에 直接미치는影響。
◇ 또다른角度로보면 世界各國이 다투어가며 金덩이를準備하기에 熱中하는것은 곳戰爭에對한準備。
◇ 이러케準備를하고서 戰爭이 버러지지안는다하면 軍神『마ー스』가 열적을노릇。

西班牙叛亂軍 首都攻擊開始

【톨레도廿九日發同盟】바레라스將軍麾下의 西班牙叛軍은 二十七日마드리드 進軍基地톨레도市占據와함께 二十八日早朝 마드리드攻略準備에着手 二十九日先鋒隊는 首都에向하야 最後進軍을 開始하엿다 一方톨레도西北마크에다市로부터 마드리드西方아비라一帶에 亘하야 各戰線에서 叛軍은 政府軍과 猛烈한 攻防戰을 展開하엿다

內亂勃發以來 最初의海戰

【지브랄타르二十九日發同盟】西班牙叛亂軍所屬巡洋艦아르미랑테 셀베라號(七八五〇噸)는 二十九日曉 지브랄타르海峽스파라텔岬沖에서 政府軍所屬驅逐艦아르미랑테·페란데스號及 그라뷔나號와遭遇、여기西班牙內亂勃發以來의 海戰이 展開되엇는데 아르미랑테·셀베라號의 砲擊正確으로 그라뷔나號는 擊沈되고 아르미랑테·페란데스號는 겨우 말라카港方面에 遁走하엿다 佛國商船크ー트비아號는 그라뷔나號의 SOS를 接受하엿스므로 곳現場에 急行、二十名의乘組員을 救助하엿슬뿐이오 百七十五名은 行方不明이다

天皇陛下大樹行幸

【大樹電話同盟】秋雨나리는 帶廣行在所에 御一夜를 밝히신 天皇陛下께압서는 第一次地方行幸最終日의 三十日 十勝平野一角大樹에 行幸하압섯다 此日天皇陛下께압서는 午前十時三十分 帶廣驛御發 午後零時十六分大樹驛 御着 天機一層 御麗하시고 略式自動車鹵簿로 沿道에 堵列한 地方民의 熱誠한 奉迎에 御會釋을 御賜하시면서 同四十二分 爲先十勝實習場廳舍에 行幸하시압고 一旦御座所에 入御하압시엿다 陛下께서는 御少憩後 松野場長에게 單獨拜謁을 御吩咐하시와 場務並 拓北部落의 狀況概略에關한 奏上을 御聽取하시엇다 다시 實習生寄宿舍、場外實習場을 御巡覽하옵신後 陛下께서는 御愛馬白雪을타시고 御英姿颯爽히 野外乘馬鹵簿로 約十五町 拓北部落二十三戶의 實情을 御視察하옵시고 同部落의共同作業場을 逐次御巡覽 御視察하시엇다 그리하옵신後 陛下께서 天機御麗 午後二時十四分同所 御發四十分 大樹驛 御發帶廣에 御還幸하옵시엇다

梨本宮殿下 朝鮮으로御向發

【下關電話同盟】南朝鮮地方의防空演習을 御視察하시옵고저 梨本元帥宮殿下께서는 三十日午前十時二十分 門鐵汽艇으로 門司로부터 御來關、官民多數의 御餞送裡에 同十時三十分 關釜連絡船昌慶丸으로 朝鮮에 건너가시게되엿다

國府對日强硬派 日本要求拒絕カ說

張群氏는平和的解決을主張

廿九日行政會議經過

【南京二十九日發同盟】行政院會議의 重要協議結果를 報告하고 蔣介石氏의 決裁를要求하기爲하야 明日 高宗武氏를 廬山에 急派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러나 目下國民政府部內의 情勢는 依然對立中으로 蔣介石氏의 決裁가업는限 到底히 綜合될可望이 업서 蔣氏는 兩三日中 廬山으로부터 急遽 飛行機로 歸京하기로 決定하야 川越大使에 會見을 求할것으로 보인다

【南京二十九日發同盟】中國側은 事態의 重大性에鑑하야 二十九日 午後九時부터 行政院會議를 開催、孔祥熙氏以下張群 吳鼎昌 何應欽 王世杰 張公權 蔣作賓諸氏及 在京各部長全部出席 爲先張群氏로부터 廣東에서 蔣介石氏와의 會見顛末을 報告하고 蔣氏抱懷의 對日外交方針을 詳細히 說明하며 此에 基하야 今後의 具體策을 協議하엿는데 對日强硬派는 猛烈히 日本側의要求拒否를 主張하야 議論紛紛、三時間餘에 及하엿다 그사이 張群氏는 外交部長으로서 아즉도 平和에對한 努力을하여 보아야 한다고 强硬히主張、何如間 行政院으로서의 對案을作成하야 蔣氏의 決裁를 仰하는 請訓을 하기로 하엿다 그러나 政府部內의 이意見對立에 依하야 中國側의 態度는 容易히 逆睹를 不許하는듯하다

三者共同 實地再檢證

【上海廿九日發同盟】三水兵狙擊犯人追及에 就하야 駐中當局은 必死의 努力을 繼續하고잇는데 廿九日午後八時부터 約一時間에 亘하야 陸戰隊 領事館警察 工部局警察 三者共同再度實施檢證을 行하엿다

增稅와赤字公債 漸減은一種夢想

稅制改革案의諸缺點

今番의 稅制改革案을 國家財政全般的立場에서 觀察한다면 該案實施로 國庫의 純增收는 明年度二億圓 平年度三億圓인데 明年度豫算만으로보면 一般會計의 歲出總額은 三十二億圓이된다 따라서 大藏省査定으로 削除를 當한다하더라도 內外情勢로 보아 國防費及 重要國策遂行費增加로 卅八億圓程度를 算할것이다 今年度에 比하면 約五億圓의 膨脹이다 이에 比하야 歲入의 推算으로보면 增稅(純增收)二億圓 外 煙草價引上(約二千五、六百萬圓) 關稅增收(約二千五百萬圓) 遞信、鐵道 外地特別會計로부터의 繰入(遞信料金 引上을 含함) 自然增收等에依하야 一億五千萬圓乃至二億圓程度의 財源을 어들것이며 남어지 一億五千萬圓乃至二億圓이 公債增發에 依치아니면아니된다 馬場藏相은議會에서每年十億圓程度의 公債發行이면 容易히 消化할수잇다고 言明하엿고 各種事情으로 觀察하더라도 明年度에 곳 公債의 消化가 窮迫하는일은 업슬것이다 問題는 以後將來에 屬하는것인데 陸軍의卅億圓計畫等 不可避한 國費膨脹으로 말미아마 後年度에不可避的으로 歲出總額은 卅五億圓이되고 四十億圓에 이르는날이 不日間에 迫到할것을 推測키어려운일이아니다 大藏省發表에 依하면 稅制改革의目標로서 『增稅收入增加를 圖謀하야 財政의 基礎를 確立함과 同時에 現代國民의 負擔으로 남긴다는일이업도록할것』을例擧하엿다 此點은 正統派健全財政論을 그대로踏襲한것인데 理論이 實踐되는 程度에따라 高橋財政과 馬場財政사이에 差違가 잇는것이다 即高橋財政下에 如斯한 增稅를 하엿다면 그結果 赤字公債를 漸減시켜 所謂財政의 基礎를 確立하는 結果를 내일수잇슬것이나 馬場財政에잇서서는 赤字公債의 漸減이不可能한것은 勿論이오 千辛萬苦하야 一時增稅速度를緩和함에不過하다 馬場藏相이 漠然히들어두엇스나 寺內陸相의『就增하는 國防費의財源으로 增稅만을미들수는업다 五十億이던 百億이던 얼마던지公債를 내야할것이여서 政府의決心如何에 달렷다』라는趣旨의事中談을하여서 世人을 驚愕시켯다。如斯히되면 赤字公債財源으로서의 增稅價値는 低下케되는 것이다 다음 增稅實施로서 財政의基礎인 國民經濟의發展을 阻害한다면 自然增收를 期待할수업는 것은 勿論增稅 그自體의 價値까지 毀損하게되다 最後로藏相이 誇張한 稅制에 彈力性을、與할것—輕率의 財產稅、賣上稅를 創設하야 戰時에 이를高昂식히기는制度도 巧妙하나 世界大戰의 經驗에비추어보면 戰費財源을 租稅에依한것은 極히적어서 全部公債로 支辨하엿다、將來戰爭에도 그와가틀것이므로 부지럽시 軍稅를 課하야 國民의 士氣를 阻喪시키는것은得策이아니라는論議도 나오게되엿다

×

筆者는 今番 稅制改革案에 對하야 誹謗할라는것은 아니다。中央、地方을 通하야 一括로 國民負擔의 均衡을 實現하고 特히 地方稅의 大輕減으로 農村民을 過重한、桎梏으로부터 解放시기고 都市와 農村사이에 富의 配分을 調整하라는 名實共히 劃期的改革이라 稱할수 잇서서 間接으로 國民生活安定에 寄與하는바 不少하다 同時에 租稅政策의 效果의 限界도 考慮치안흐면 아니된다。例하면 消費稅增徵等은 現在의 政治經濟機構에서는 生活必需品이면 그럴수록 弱者인 最終消費者에轉嫁시겨서 大衆을 壓迫하는것이므로 新設한 賣上稅等은 如斯한 傾向을 가젓다。이結果一般大衆의 購買力의低下 生產活動의衰頹가 相互間에 因果的으로 關聯되여 結局增稅의 目的을 達치못하는것이다 如斯한逆結果를 防止調整할라면 租稅政策으로는 處理할수업다 以上의 缺陷을 補充할라면 一定한 指導原理에 基礎하야 各部門의 政策의綜合的施行을 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嗚呼! 沈熏!!

지난九月十六日午前八時! 三十六歲를 一期로 小說家沈熏이 長逝하엿다。文壇으로의 失望보다도 讀者로서의失望이더컷것이다。生命이란이다지虛無한것이가? 그러나 그의뒤는 너무도寂寞하다! 그의作品은永遠히 살것이다。讀者여! 그의遺作을 求하여보지 안흐려는가?

彗星가티 왓다 彗星가티 사라진 沈熏의 最後作品! 이畢生의血作『常綠樹』가 世上에 나오는날 그는 世上을 떠낫다。文壇의金字塔임은 勿論 朝鮮出版界 空前의事實로 이 한卷을 世上에보내는 것이다。

長篇小說 常綠樹

定價一·八〇 送料拾錢

四六判·高級布裝·紙質極上·五〇〇頁·金字函入

보라! 朝鮮文學의 金字塔朝鮮農村의指南盤! 沈熏는이미 갓다—이때에 永遠히 푸르를것을 어저서는 안된다!

故沈熏氏는 朝鮮文壇이 가진、天生의鬼才와 太陽과가튼 情熱을가진 作家로서 일즉이 映畫小說『탈춤』을發表하야 그의文學的天才를 滿天下에알린바 잇거니와 長篇『東方의愛人』『不死鳥』『永遠의微笑』『織女星』等이 新聞에 連載되자 氏의 新聞小說家로서의 存在는、바야흐로 劃時期的地盤을 占領하여나려왓으며 去年에 東亞日報가名作을 天下에呼訴하야 公募하엿을때 氏는 偏狹한 旣成作家의 自尊心을 勇敢히 超越하고 다만情熱과 良心을傾注한이『常綠樹』로써 公募에應한것이엿으니 그構想의緻密、그 文章의 雅麗함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現下朝鮮 農村現實을 浪漫과『레알』한手法을 겻드려서 感激찬描寫로써 讀者를 肉迫한 力作이다。

初版賣盡切迫! 急注文하라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電話(光)二四七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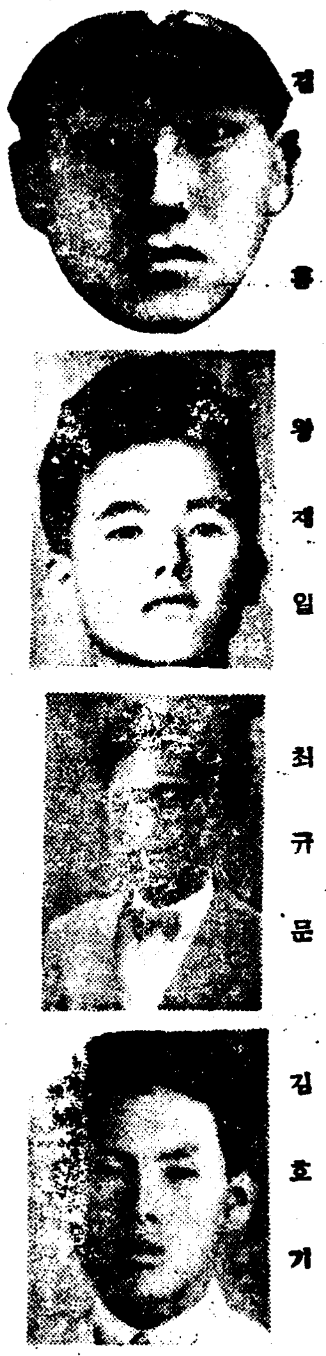
注文하실때에는 本廣告揭載의新聞名을 必히써보내주시오

故沈熏作 永遠의微笑 四六版 定價一·三〇 送料一〇 故沈熏의處女出版! 必讀의巨篇!

檢擧以來二年半 出廷被告四十九名

各被告間의人事要求를 裁判長이拒絶

全南協議會事件公判開廷


김홍배 황동윤 윤인옥 최규문 김호기

【木浦】 루루=전라남도(全羅南道)를 중심으로 조직된 공산주의결사 전남사회운동자협의회(全南社會運動者協議會)사건은 지난 소화구년이월중순경에 탄로되야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령암(長興、康津、海南、莞島、靈岩) 등지에서 오백오십팔명이 대량적으로 검거되야 그중삼백사십오명이 불구소 일백팔십사명이 기소유예, 십팔명이 기소중지되고 구변구원칠일에 오십칠명이 기소송국되얏든바 그중륙명이 예심면소되고 오십일명이 공판에 회부되야만이년팔개월만에 예정과가티 지난이십구일오후한시부터 광주법원목포지청 제이호법정에서 정사복경관의 삼엄한 경계하에 수백명의 방청객이 살도하야 방청권을 발행하야 가족들만을 방청케하얏다

굴부(堀部)재판장주심 김(金)검사관여 류、롱구(柳、瀧口)량판사의 배석과 김성호、김영수(金聲浩、金永洙)량변호사의 렬석으로 열리엿는데 당일출정피고 오십일명중 김인학、리순주(金仁學、李淳柱) 두명은 병으로인하야 출정치못하고 황동윤(黃同允)외사십팔명이 출정하엿는데 그중윤인옥(尹仁玉)은 위장(胃腸)병으로 매우중태이고 그외는 건강상태이엿다 재판장으로부터 주소、씨명、년령、직업들을 물은후 황동윤이 이러나 피고들끼리 인사할것을 요구하엿스나 그만거절을 당하고 재판장은 나시피고일동에게 심리에대한 주의사항을 말함에 이사건의주목자격인 김홍배(金洪培)가 큰소리로 어서사건이나 속히진행하라 또는 삼년만에 이법정에서만나는 우리동지일동을 인사케하라는등 몸부림을치며 떠드러법정의공긔는 자못긴장하야 피고들의태도는 다소 흥분되얏슴때에 재판장은 오늘은 그만마치고 차회개정 변호사들과 합의하야 결정하겟다고 동두시이십분에 폐정하엿다

이사건의 내용을 대강소개하면 당초검거되자 그중에는 현직경관과 교원들이 참가하야 이와가티 대량적으로 검거되얏든것은 공산운동사상 실로보기드문일이며 이사건의 지도인물인 리창우(李昌雨)는 지금피신중이고 검거된 김홍배는 전협(全協)계통인물로서 오랜지 농촌청년에게 선전선동을하야 각군에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고 그련락지도긔관으로 전남운동자협의회를 조직하야 총독부당국에서 극력주력하는 농촌진흥회를 적극적으로 리용하기위하야 그안에 장이활약하는동시에 야경단(夜警團)과 계(契)등을 조직하야 일반대중에게 두터운 신임을 엇도록 활동한것과 하부조직으로부터 상부조직의 계성을도모하고 모든회합에는 파수보는사람을 세우고 산지밀림(山地密林)에서 준비공작을하야 망년회와 신년연회등 명목으로 결사의긔초를 완성하야 제삼차회의에서 팔개"레—제"를 결정하야 군、면、리에 "뿔럭"조직을 하고 하법긔관을 적극적으로 리용하며 중앙긔관지로 농민투쟁을 발간하야 각처적색농민조합준비회에 배부하고 긔념일마다 격문을 발간하는등 실로진지한 투쟁을보이엿다한다

出廷被告住所氏名

治安維持法 出版法違反

▲莞島郡郡外面黃津里 黃同允(三二) ▲莞島郡古今面靑龍里 李基弘(三五) ▲同 郡外面新鶴里 諸東善(三九) ▲同 同 黃相甫(三六) 莞島郡莞島面長佐里 文升洙(三一) ▲同郡外面大也里 金吉龍(三二) ▲同古今面靑龍里 朴[illegible](三五) ▲同郡外面農[illegible]里 李興[illegible](二七) ▲同古今面冠山里 金玉道(三七) ▲同郡外面黃津里 金洪培(三二) ▲同郡外面龍里 鄭後均(三四) ▲海南郡北平面梨津里 尹仁玉(三二) ▲同 同島山里 吳文鉉(二六) ▲海南郡山二面相谷里 吳洪[illegible](三四) ▲同北平面[illegible]里 金[illegible](三二) ▲同同 [illegible] ▲同 同 西洪里 朴太進(三六) ▲同縣山面 日平里 千[illegible](三四) ▲同北平面西洪里 金[illegible](三七) ▲同山二面相公里 吳[illegible](三七) ▲同北平面西洪里 朴[illegible](三五) ▲同上 車泰[illegible](三[illegible]) ▲長興郡南面[illegible]岩里 劉[illegible](三七) ▲同上 丁[illegible](三七) ▲同 同 [illegible]山里文[illegible](三二) 同 上德岩里金斗[illegible](三七) ▲長興面 [illegible] [illegible]

森林警察隊六十餘名 突然豹變코叛亂

平尾中尉以下二名上官을射殺

兵舍에 放火코逃走

【咸興】 모처착전에 의하면 어십사일오후여섯시경 림강현삼림경찰대(森林警察隊)제사중대장이하 륙십여명의 대원은 돌연표변하야 동중대일본시도관원 평미(平尾)중좌이하두명을 사살하고 병긔탄약을 강탈하야가지고 동병사를 방화하고 도주하얏다한다

電車에 重傷

길을건늘때에는 발뒤이좌우를살필일—이십구일 오후두시반쯤되여 시내숭인정(崇仁町)백오십삼번지아페서 동대문에서 청량리방면으로 향하든 안암정(安岩町)백번지의이호 서거복(徐巨福)의맛아들 상옥(相玉)(三)의자전거가 길을건너랴다가 동대문으로 들어오든 전차(運轉手崔東敏(三[illegible]))와부듸처넘어저서 창경병원(昌慶病院)에서 응급치료를 바덧는데 오른팔목이 부러저 전치한달의 중상이나생명에는 관계업다고한다

"當代沈淸"의 溫情

本報에記事를보고

그보=전신불수의 아버지를 십삼년동안이나 지성껏 받들어서 면장과 유림회며 도지사로부터까지 그표창을받든 경북의성군비안면동부동(義城郡比安面東部洞)에 본적을둔 리석배(李石培)의둘째딸 효녀 월순(月順)(二[illegible])이가 가난한 몸으로하야 유곽에까지 몸을팔어 병든아버지를 봉양하려고 지난이십오일 평양서에 그허가원을 제출하엿다는 당대심청(當代沈淸)이의 이야기가 본지에 보도되자 불과수일에 그에처럽고 갸륵한 정경이 과연반향을 끌려 드듸여 삼십일오전중에 그처럼 불상한 효녀월순이에게 약간의 도음이될까하고 보낸다는 측은히쓴 글빨과함께 현금십원을 시내행당정(杏堂町)이백오십번지 리갑성(李甲成)씨가 본사로보내왓다

五千圓切手盜難

감쪽가티現金으로밧구어서 情婦와어울려遠走

부내 삼판통(三坂通)백칠십삼번지 황옥철공소(荒玉鐵工所)에 십삼년동안이나 잇는 근등융(近藤隆)(三九)은 지난 이십팔일 아침열시쯤되여 그철공소 금고속으로부터 오천원짜리 소절수한장을 몰래 떼여 그날로 상업은행룡산지점(商業銀行龍山支店)에가서 칙저가지고 자긔의 정부와함께 자취를 숨키고 만것이 이십구일밤 늦게야 드러난바 되여 그주인은 이사실을 소관룡산서(龍山署)에 알리여왓스므로 그서형사대는 방금활동중이다。

秋夕날飮毒騷動

삼십일 추석날 아침 아홉시경에 시내가회정(嘉會町)에 알구즌 자살소동이 이러낫다 자살을 도모한사람은 가회정사는 모부호의 아들로 현재 경도립명관대학(立命館大學)에 학적을두고잇는 리민수(李敏洙)(二[illegible])—假名—로서 「칼모친」과 「도르민」을 먹고 신음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 의사를 청하여 응급치료를 하는중인데 생명에는 관계가업슬모양으로 원인은 동도락비한것을 아버지에게 질책을 듯고 비관한것이라고한다

阿片吸煙現場에서 警官買收失敗劇

中國人男女兩名引致

아편흡연(阿片吸煙)현장에서 경관에게 발각되자 현금이십원으로 그를 매수하려다가 톡톡히 경친 중국산동성(山東省)출생으로 부내혜화정(惠化町)일백십육번지에서 호떡장사를 하는 두자명(杜子明)(三[illegible])은 어제이십구일 오후여덟시쯤에 서소문정(西小門町)이십일번지 중국인녀자 왕씨(王氏)(三[illegible])집에서 아편을 먹고잇든중 순행중의 서대문서원에게 발각되자 전긔왕씨는 피존갑속에다가 현금이십원을 너허가지고 용서를 애원하엿스나 령경경관은 거긔에는 귀도기우리지안코 도망하는 두자명을 체포한후 현장에 도라와보니 그사히에 왕씨가 증거를 인멸식히라고 약품들을 전부감추어버렷슴으로 왕씨까지 검속하고 엄중히 취조를 계속하는중이다

水原高等農林 赤色事件公判

來月十九日大邱서

【大邱】 수원고농학생 (水原高農赤色)사건의관계자

長城郡長城面鈴泉里 產業技手 金鍾壽(二七)
金泉郡金泉面南山町 郡農會技手 金光泰(二[illegible])
楊州郡蘆海面蒼洞 農業 李容[illegible](二六)
順天郡順天邑住谷里 米穀生產費調查員 崔弘基(二六)
京城府中學町六五 無職 金在現(二[illegible])
水原郡安龍面坪里 水原高農生 劉載煥(二[illegible])
京城府長橋町一七 農會雇員 金[illegible](二六)

등에대한 공판은 오는시월삼십일 오전아홉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강등(江藤)재판장주심으로 개정한다고한다 피고들은 소화구년오월에 김천(金泉)서에 검거된이래로 이년사개월만에 첫공판에 부치엇다고한다

京城驛에서南大門 電車軌道移轉着工

경성전긔회사에서는 경성역으로부터 남대문까지의 전차궤도를 중앙으로 옮기기로되야 삼십일부터 드듸여 공사에착수하기로되엿다

寫眞技術者採用

今般本社에서 左記條件에依하야 寫眞技術者數人을 採用코자하오니 希望者는 自筆履歷書를 携帶하고 十月二日午前十二時까지 本社庶務部로 來談하시압

一、年齡二十歲以上三十歲以下
二、出寫와製版에 相當한經驗이 잇는者

朝鮮日報社

防空演習은 本舞臺로!

釜山市內는演習一色

【釜山에서特派員李鴻稙發】 남내의 중요지대의 건물우에서 그조선방공연습은 삼십일새벽부터 드듸여 본무대로들어섯다 철벽과가튼 방공수비진은 전회의준비연습 예행연습때부터 훈련되여 오전다섯시반경에는 적의전조긔의 습래와함께 완전히 그긔능을 발휘하야 쉬웁게 이를물리첫다 또다시 적긔 습래하자 「싸이렌」과 라디오 「메가폰」보다 민첩하게 그경보의 임무를다하고 전신긔관의 긔민한활약은 방호단본부와 각지구와의 련락을완전히 해내엿다 이와동시에 지상부대의 고사포대、긔관총대는 시시와기든 적긔를 조차버렷다 오전중에 네차례의 공습이 잇섯스나 별로히 큰 손해는업섯다 정보에 의하면 적긔의 유령부

"楓嶽"의道路改修

‖今番水害로決潰된個所를‖

不日中에完全復舊

지난 이십륙일부터 다시 나린비때문에 수해를바든 금강산(金剛山)탐승길의 그후 상황은다음과 갓다—

【外金剛方面】

【1】……만물상(萬物相)은피해가 업서 온정리—륙화암(六花岩) 사이의 자동차는 평소대로 다니고。
【2】……구룡연(九龍淵)은림시로 노후동을나무다리가 떠나려가서 한때 못다녓스나 바로고처서 전과가티 다니고잇다。
【3】……구을연—비로봉(毘盧峰)사이의 길도 별반지장이업고。
【4】……온정리—신계사(神溪寺)사이의 자동차길은 아프로이、삼일지나면 곳개통될모양이고。
【5】……외금강역—온정리사이의 자동차길도 이、삼일잇스면 복구될터인데 개통까지는서로 자동차로 련락을 취하고잇다。

【內金剛方面】

【1】……내금강역—장안사(長安寺)사이의 자동차는 복구개통을 보앗고。
【2】장안사—비로봉사이의 간선길은 속도로는 빨리 수리한결과 겨우 통행하게쯤되엿다。

놀랜말에重傷

이십팔일 오후여섯시사십분쯤에 부내봉래정(蓬萊町)삼정목일번지에서는 김성준(金成俊)(二[illegible])이가 마차를끌고 남대문(南大門)에서 봉래정(蓬萊町)삼정목방면으로 가든중 동정이 사실륙번지아페서 마차의 말이 자동차에놀라서 약여섯간통이나 뛰는바람에 부근에잇든 중림정(中林町)이백삼십팔번지의 신순룡(申順龍)(二[illegible])이가 연구루마와 아울러 마차에 부드치여 그자리에 혼도되고말엇다 이를목도한 사람들이 곳중림정(中林町) 서경의원(西京醫院)으로 떠메어다가 응급수당을 가한결과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며 요부불완전골절(腰部不完全骨折)로 약일개월치료를 요할중상이라고한다

運動競技

體育데이

第十三回京城府 明日부터開幕

제십삼회경성부체육데이는 명一日과 來四日의 양일간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當日의 「프로그람」은 다음과 가트며 兩日間은 例年과가티 無料開放하기로되엿다

◇十月一日
▲陸上=府內初等學校聯合體操及陸上競技(午前九時)
▲庭球=府內一般男子軟式庭球戰(A코—드)及 府內男子中等庭球戰(B코—드)(午前九時)
▲野球=靑年團리—그決勝(午前九時) 府內公立普校리—그決勝(午後一時) 京師對京商(午後三時)
▲蹴球=培材高普對普成高普(午後一時)
▲씨름=府內一般씨름大會(午後一時)

◇十月四日
▲女子籠球大會(午前九時)
▲女子籠球=府內女子中等學校庭球戰(午前九時)
▲野球=府廳各課對抗軟式野球(午前九時) 府會議員府廳食堂軟式野球(午前十時半) 遞信對京電野球(午後三時)
▲마스께임=府內女子中等校聯合마스께임(午後零時四十分)
▲日本式씨름=府內一般씨름大會(午後一時)

孫南兩君

十月五日神戶到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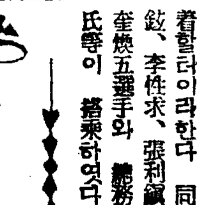
世界마라손王 孫基禎君과 三着한 南昇龍兩君을 태운 伊太利船 「콘테롯소」號는 지난二十七日午後八時新嘉坡에 到着하야 當地에서 開催된 歡迎會에 臨하엿다가 同夜十一時半 新嘉坡를 出發하얏는데 「콘테롯소」號는 比島「마닐라」에 寄港할 豫定을 變更하야 上海로 直航하기로되엿슴으로 同船이 上海에 十月三日까지에 到着한다면 當日上海를 出帆하는秩父丸을타고 十月五日에는 神戶에 到着할豫定이라한다

올림픽代表本隊

關門通過는一日午後

【鹿島丸廿九日同盟特派員發】 올림픽代表本隊가乘船한 鹿島丸은 二十九日午後七時 緊張한 上海를 解纜하야 故國으로向하엿는데 關門海峽을 通過하기는 一日午後一時頃이라하며 神戶에는 豫定과가티 二日午前九時에 到着할터이라한다 同船에는 販殷鉉、李性求、張利鎭、金容植、李奎煥五選手와 總務委員 李想伯氏等이 搭乘하엿다。

天氣豫報



槪況=七三〇粍의 颱風은沖繩의 南쪽約百粁의 海上에잇서 北로 西로進行中이나 進路를北으로는 北北東으로 轉向할라고하고잇다 또七五四粍의低氣壓은國境附近에 잇서 東進中이며 高氣壓은 蒙古及滿洲에서 七六六粍로 朝鮮으로부터 日本內地로퍼지고잇다 朝鮮과滿洲는 개이고 琉球諸島는風雨가세며 表日本과 其他는흐려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개이고 明日도개이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八
最低	一四度七
今朝最低	一四度
今日正午	二二度七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掘機로!

新案二二三三二七號 特許一二〇二九號 新案二二七二四〇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 三六八 三四四四番

朝鮮鐵工所

シヂクシム
회충구제약
岩崎大海堂 セメンノ菓子
산부니님와자

テント
丸善テント商会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カタログ進呈)

朝報案內
園藝 速達法通信傳授 [illegible]
女事務員 [illegible] 日本人經驗者 [illegible] 京城府安國町一五五 日本ペイント特約店 三一洋行
圖案家募集 圖案ト看板ニ經驗有ル方 本町三ノ五一 愛國ネオン商會
大水災活動謝禮 [illegible]

朝鮮映畵 第一輯 값20전

卷頭言……白命坤
朝鮮映畵企業論……崔章
映畵의文化的使命……吳昌龍
朝鮮映畵의生命線……崔南周
映畵의리알리즘에對한片感……崔永秀
日本映畵發達史……安鍾和
兒童과映畵……金泰午
카메라詩人칼—호프만……梁世雄
◆尖端女性映畵座談會
◆映畵俳優一問一答……金蓮實
◆映畵俳優로서文藝峰을말함……成秋野

朝鮮映畵製作에對한建議
第一義的인原作問題……[illegible]
一般性을띄운朝鮮鄕土映畵……宋影
어떠케해야外國에輸出하나……[illegible]
朝鮮서토—키는時期尙早……故沈薰
朝鮮音樂偶感……[illegible]

映畵隨筆
映畵人으로서企業家에보내는말……徐月影、沈影、[illegible]
旣成俳優와新進俳優……李圭煥
호떡과朝鮮映畵……[illegible]

映畵小說
都心地帶……咸大勳
女優G孃……金龍圭
갈메기……安夕影

스터—뒤特輯
스터—뒤—京城遊記……一記者
스터—뒤—氏를보내며……白命坤
人間으로서스터—뒤—……崔章
스터—뒤氏를中心으로映畵藝術座談會
朝鮮映畵人스氏歡迎會記……一映畵人
藝術家로서의스터—뒤—氏……[illegible]
映畵監督으로본스氏……R.K生
카메라맨이본스氏……[illegible]
旅客스터—뒤氏……梁世雄
스터—뒤—氏觀相……[illegible]
스터—뒤氏의멧세—지……

朝鮮映畵監督苦心談
『먼동이틀때』의回顧……故沈薰
『아리랑』을만들때……羅雲奎
『靑春의十字路』의回想……安鍾和
『무지개』를만들때……李圭煥
『春香傳』을製作할때……李明雨

各方面人士의 朝鮮映畵에提言
具滋玉、金井鎭、金成鎭、具本雄、金活蘭、金復鎭、李晳、李圭煥、李瑄根、李賓永、李無影、馬海松、朴晶範、卞榮魯、邊成烈、宋影、申興雨、沈熏、嚴興燮、兪鎭午、兪億兼、崔麟、崔永秀、韓京濟、白鐵、徐恒錫

京城府長谷川町一二三 빌딩三階・振替口座京城二五七三五番 地方支社大募集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 [illegible] 收入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執綿生駒停留場前 博文社

뷔인무덤

어떤 회회교인이『예수』교전도인을 맛나서 하는 말이『우리회회교는 당신네『예수』교인들이 가지지 못한것을 가진것이 하나잇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성지『메카』에가서 우리교조『모하멧』의 시체가 드러잇는 관을 실지로 보고 경배할수 잇는것이다 그러나『예수』교인들은『예루살렘』에 간대야 뷔인 무덤 박게 보는것이 무엇이냐』하엿다『예수』교인은 한참이나 그말을 듯다가 대답하기를『네 말소이다 당신의 말슴이올소이다 우리 종교와 우리 종교의 다른점이 꼭 거긔 잇는것이외다 즉 말하자면 회회교의 교조『모하멧』은 죽엇소 그리하야 당신도 회회교인 이만큼 그의 죽은것을 잘 알고 잇스며 우리 교조『예수』는 죽기는 죽엇섯스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무덤은 뷔인 무덤으로만 남아 잇는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잇소이다』하엿다 과연『예수』교는 현하 인간을 만족지 안케 녁이고 갱생을 주장하야 갱생을 희망하고 나가는 종교이다 무덤아 네 이기는것이 어데잇느냐 사망아 네 쏘는것이 어데잇느냐 우리로 하여금『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덤은 뷔인무덤만 남을것이다。

謹告 通告事奉國民政府外交部令自民國二十五年十月一日起價東簽證費單費五圓海關金單位折收日幣十二圓七十錢行政收入貼用收據費每帋一圓折收日幣一圓十五錢特此通告周知此佈
中華民國駐京城總領事館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 學科講義
高等科 [illegible] 卒業 速修 隨意
普通科 [illegible] 卒業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illegible]
學則案內容見本請求卽時無代進呈

本會의特徵 開講七月 刊行每月 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에比하야 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東洋劇場
劇團豪華版第一回公演 九月二十九日부터 [illegible]
人情劇 正義의復讐 二幕三場 雲芳作
鄕土劇 나의靑春너의靑春
小喜劇 好事多魔 一幕二場 洛山人作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光州支社 支社長 金[illegible]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海州支社 支社長 宋[illegible]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水原支社 支社長 李光[illegible]

京城之部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鐘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鐘路二丁目 白楊堂

京畿道之部 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徐光甲
慶南之部 代理店 龜浦 朴基煥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金星藥房
咸南之部 代理店 [illegible] 鶴仙藥房
永興郡宣興面 [illegible]龍藥房
漁大津 閔泳[illegible]
咸興府本町二四 三省堂藥房
咸北之部代理店 惠山線合水驛前 永生堂藥房本店 池潤衡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之部 特約店 仁川府外里 中和堂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金浦邑 回生堂藥房
開城府都橋市 ハヤシ藥房
始興郡新東面平昖里 李[illegible]英
永登浦 [illegible]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illegible]
水原郡鄉南面發安里 金佑鉉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李般傑
京畿道水原邑內 金德根藥房
京畿道陵谷驛前 陵谷藥房
京畿道素砂驛前 金春商店
永登浦町五二三 和順藥房
楊平郡龍門面新店里 徐聖藥房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朴灯均
洪城邑豊農園 李康世
成歡驛前安成商店 宋千逸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公州郡錦町 權明順
全義驛前 鄭寅九
忠南溫陽溫泉 溫陽藥房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華信藥房
忠州錦町三八 朴綺陽藥房
忠州邑淸水町一二〇 錦北藥房
全南之部 特約店 順天邑金谷里 金禎泰
潭陽郡大田面台城里 丁判燮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貿藥部
全北之部 特約店 群山府藏財町一四五ノ二 中一藥房
金堤邑內 鍾東泰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鎬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益山郡王宮面興岩里 金永[illegible]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之二 朴[illegible]煥
慶南之部 特約店 咸陽郡安義面錦川里 大光藥鋪
河東邑 崔再錫
晉州邑昭和町大明堂 濟生堂藥房
晉州邑明治町 金三珠
晉州邑日出町一〇九 金元春
晉州邑日出町六三 第一藥房
晉州邑榮町 金成藥房
馬山府京町 大洋洋堂
馬山府石町 ツバメ藥房
釜山府寶水町義興號 李[illegible]秀
蔚山郡彦陽面[illegible]里一六 五行堂藥房
居昌邑內 韓明東
南海驛前 [illegible]
南海 天和藥房
泗川郡西浦面[illegible]里 [illegible]
晉州郡邑明治町五五 金[illegible]玉
馬山府富町市場入口 平和堂藥房

慶北之部 特約店 慶北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尙州郡邑外[illegible]里
善山邑本町
金泉郡牛山面[illegible]里
義城邑內
大邱府達城町三〇
佛國寺驛前
淸道郡華陽面松金洞
江原道之部 特約店 金化郡邑
江陵邑內
原州郡東面花月里一〇四
金城驛前
原州郡富論面興湖里
洪川郡化村面君業里
平康郡福溪驛前
鐵原邑中里
元山府南村町二四
元山府廣石町一
元山府
甲山郡惠山鎭本町
興南驛前九龍里
咸南北靑郡下車書面農業市
咸南馬場驛前
黃海道之部 特約店 載寧邑內
鶴井驛前
鳳山郡德在面赤城里[illegible]
海州邑北旭町二五七
信川郡龍門面福洞里
延白郡彰德里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安岳邑內
載寧邑內
南川驛前
沙里院本町通
平南之部 特約店 平壤府大和町通
大同郡斧山面中一里
肅川驛前
龍岡郡海雲面城峴里
龍岡郡海雲面龍井里
安州郡立石市 李觀信
平壤府南町四一
平壤府橋口町四〇
平南价川驛前
平北之部 特約店 碧潼邑內
滿浦線香山驛前
龍岩浦農民共生組合
宣川邑川北洞
鐵山郡邑內
江界郡公北面香河洞
熙川郡邑上洞八五
宣川邑川南洞
新義州彌勒洞
龍岩驛前
定州郡大田面雲田洞
雲山郡北鎭市
雲田驛前
新義州府眞砂町
咸南之部 特約店 新浦邑內
定平郡新上驛前
永興郡宣寧面三驛里
豊山邑內市 義信商店
長津郡新興面上梅田里
新高山驛前
北靑邑 壽世局
北靑驛前
北靑郡下東書面萬京市
咸北之部 特約店 吉州邑內
城津港旭町
城津郡鶴南面禮洞
雄基港本町
會寧邑大正通
城津港旭町
淸津府新岩洞
朱乙驛前
明川邑明川洞
雄基上本町
雄基邑本町
羅南邑初瀨町
城津邑旭町
羅南邑生駒町
明川郡下加面西浦洞內花台市
鮮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間島龍井市大通路
安東縣平揚通九丁目三番地
滿洲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關前

물길어오다가 잠시 쉬어서

『소아시아』의 ... 는 도처에 명승고적이 ... 만 노픈곳에 올라서서 ... 죽의 자취를차지하고 ... 병을 들처메고 물을 기러오다가 생이서 피히 미지안은 ... 잠시 ... 지요。

오뉴월 눈인가 청춘의 새치머리

몸은봄이나 머리에가을든탓 (애써거두면보람잇다)

늙을 나히가 다 되어서 머리털이 시어 진대도 한심스러운 일이러든 하믈며 새파란 청춘에 신머리를 가저서야 그 심회가 과연 어떠켓습니까? 아니늙으신네들이허연머리털을 나붓기시는 것은 그래도신수로나 풍채로나 그럴뜻도 하지오만 절믄이들의 머리가 허여케 되여서는 해괴스럽고 망칙스럽고 보기에 숭업고 그야 말로 평생의 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개 나고 두개 나는 것을 해여 새치라고 업신녀기어 등한히 던저 두지 마십시요. 그 것이 열, 스물, 그러케 반머리, 온머리를 더퍼서 고만 성성한 백발이 되지 말란 법잇스오릿가?

그런 조선서는 청년에 백발되는 원인을 어떠케 알앗는고 하니 부모의 무덤시속에 차돌이 들어 간 탓이라고 하얏습니다. 조상의 뼈를 가저고 자손의 복을 바라든 어리석은 옛사람의 생각으로서야 그런 생각도 못할것이 아니오나 오늘날 우리로 들어서는 발간 거짓말에 지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거머야될 청년의머리가 하야케시어 버리는 것입니까? 현대 과학은 그 것을 어떠케 설명하고 잇습니까? 즉 머리털의 조직(組織)속으로 공긔(空氣)가 들어 간 까닭에 그러케 된다고 합니다. 단지 어째서 공긔가 그속으로 들어가고 어떠케 젊은 색소(色素)가 히게 되는지까지는 아즉도 잘아지 못 하고 잇습니다.

×

몸을 길러 내는 피부에 는검은 색소를 맨드는 장치까지 잇는데 그러면 ... 하는것을 모낭두세포(毛囊頭細胞)라고 합니다。 이세포가 털을 검게 하는 것이니까 이 세포에 고장이 생기어서 털이 히어 지는 것만 ...

[illegible]

증(症)을 치료하도록 하십시요 (一)모자를 벗고 다니거나 모자에 구녕을 뚤러 머리ㅅ가죽에 항상 깨끗한 공긔를 쏘이십시요。 (二)머리를 자조 감고 비듬을 떨어야 하되 넘어 지나치게 감거나 빗질을 하여서는 도리어 영향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십시요 그리고 새치가 벌서 늘거든 의사에게 가서 아비산제(亞砒酸劑)의 주사를 마저야 합니다。 그래도 끄치지를 안커든 광선과 전긔로 를치료 하야여합니다

토끼 (金(十一))

남쪽나라 따뜻한나라 바다에서해가뜨고 바다속으로 해가지는 쓸쓸한조고마한섬에 톡기한마리가 동모도업시 혼자서쓸쓸하게살어가고 잇섯습니다。

그래 어느때이고 바다건너 저쪽뭍에는 큰동무들이 만히사는 산이그리워서 그리워견델수업섯습니다。

톡기는 이러케 쓸쓸한살림을하고잇는데 어느듯 이섬에도 꼿이피고새가노래하는 따뜻한봄이차저왓습니다 톡기는 더욱더 바다저쪽이 그리웟습니다 날만새이면 바다가 언덕우에올라와서는 바다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며 눈물을흘리고잇섯습니다。

[illegible] 『고기님』 『고기님』하고 불럿습니다。 그런니까 어데서인지 큰고기한마리가 나다르며 톡기를 보고서, 『왜불럿니?』하고물엇습니다 『그러무슨말이냐』 『당신일가가 이세상에서 제일만타지요』 『아니요 그것은몰으고하시는 말슴입니다 우리일가가 얼마나 만흔줄을 도모지 모르고하는소리입니다 암만만타고하드래도 우리톡기만못할것입니다。』 『무엇이 어째 너이들이 우리만한줄아니 흥 암만그래보아라。우리만못할걸……』 『아니요 우리가만습니다 내말이미들수업거든 서로비교해보는게엇덧습닛가?』 『그래 그것조타』 『그럼 내일아츰일즉이 당신네일가들을 다ㅣ다리고 오시요 그러면 나도다ㅣ다리고 올터이요』 『그럼 그러케합시다』 이러케 약속을하고 물고기는물속으로 톡기는숲으로사라젓습니다。

×

그이튼날 톡기가 바닷가에 나와보닛가 바다물이잘보이지안흘만치 물고기가만히나와잇습니다。 톡기는놀랏스나 꼿시침이를 떼고, 『당신들이 이러케만히잇쓰면 세여볼수가업스니 여긔서부터 한일자로 죽느러서 보시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등위로 밟고건너가면서세여보겟습니다 우리일가는곳쏘다저올것입니다』 물고기들은 그럴듯이생각하고 곳바다저쪽을향하야 죽늘어섯습니다。 속모르는 물고기들은 속은줄도 모르고잇는대 톡기는 『올라되여다』하고 물고기들을 밟고하나식 하나식타고 건너갑니다。 물고기들은 저이들이 만흔것만 자랑하려고 한번세인놈도 이쪽에서 물속으로헤염처서 저쪽에가서 못굿못굿하엿습니다。 그리하야 어느듯 오래동안 그리워하든 뭍을 밟고건너가려할때입바른소리로 『당신들은 참 만키도하오그러나 나에게 속앗소 내가 산이그리워서 생각다못하야 이러케 건너온 것이요 자네들잇거 도 만나세』 하고뛰여건너가려하엿습니다

고기들은 이말을듯고거저 놓잡아라소리치며 각가운곳에 엎드려잇던 물고기들은 최다 달려들어 톡기를 잡어서 입으로 물고 꼬리로 차고 가시로 쏘앗습니다 그리고 톡기가 아파하는놈을 보고 유쾌하게 우섯습니다 그리고나서는 톡기의 털을 다 뜯어버렷습니다。 그래서 톡기는오래동안그리워하든 산으로 차저오기는햇스나 털이잇서야지요 눈오고 바람찬겨울이오면은 치움을 견데지못하야 물고기를 원망도하고 또자긔의입빠른것을 후회도하면서 기픈산속을 지금도 이리저리 헤매여다닌답니다。 끗

길고 긴가을밤 잠못자는분께

—잠잘오게하는비결공개—

보통사람은 자리에누으면 곳 잠이 기피들어서 두시간쯤지나면 제일기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은 사람에 따러서 여러가지 종류로 잠을자는 것입니다 잠이잘안와서애쓰는사람、끈하게자다가발중이면 깨는사람 아침잠이 만허서 대낫이 되여도 이러나지 안는사람 밤잠은 잘만치 자고도 낫잠을 자는사람、별별 사람이 다잇습니다 잠자는시간은 사람 한평생의 삼분지 일이나되니 잠을 잘자는것도 사람의 생활의 한 토막이라고 할수잇스며 이것을 적당히 하지안흐면 신체에 해로움은 물론 생활의 규칙이문란해지는것입니다 잠을 잘못자면 이튼날은 종일몸이무겁고 따분하며 열이납니다 구미가업서지고 대소변이 적어지며 살이야위고 눈이움푹하야저서 체중이줄어듭니다 잠을 잘자지 못하는사람은 대개 신경쇠약 호흡기병 위장병 환자가 만습니다 특별히 몸에 고장이업고 잠이들지안는 사람은 자기전에 운동을조곰하면 잠이 잘옵니다 자기전에 음식을 만히먹고 자면 위장의운동이 계속되므로 잠을잘수업스며 꿈이 만히뵈게되는것입니다 그러하야 배가 너무고푼것을 그냥자면 위에해로우며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이잇는사람은 위가아파서 견댈수업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조곰먹고 자는것이 조흡니다 커피나 홍차를 먹어도 잠이 오지안는 사람이 잇스니 이런사람은 될수잇는대로 차를 먹지안토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술을마시고자면 잠이 잘오는데 이것은 알콜에 ... 취되는것이니 밤마다 술을 ... 자는 습관을 드리면 중독이 되여 버립니다。 아모리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안코 눈이만 ... 는 술을 조곰마시고 ... 은 조흡니다 이불은 ... 삼분지일동안을 ... 걸치고 잇는 물건 ... 는데 영향이도는 ... 잇는대로 깨끗한 ... 록하며 비단으로 ... 려울뿐 잠자는데는 무 ... 만 못합니다 벼개는 너무 ... [illegible]

알면자랑꺼리 중국료리 맨드는법

진긔한고급료리만추려서 오일부터강습회를연다

식욕의가을! 무엇이든지 먹으면 쑥쑥 내려가고 살이오르는이철 여러분께 조흔소식이잇습니다。 경성녀자긔독교청년회에서 해마다 해오든 중국료리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엇습니다。 중국료리가 세계의 어떤나라의 비위에도마저 그야말로 세계적료리가 되어잇는것은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나라가 이웃인 조선사람에 특히 환영밧는것은 일상생활에 근사한까닭이라 여상스러울것도 못됩니다 그러나우리네가정에서는 『텐뿌라』니 『잡채』니해서 가장 저급한 중국료리일망정 맨드러 먹을줄아는주부가 몃분이나 됩니까 그러키 때문에 녀자기독 청년회에서는 중국 남방지방에서 오래사랏고 또 중국료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십여년동안 연구한 정순원(鄭順媛)씨를 초빙해서 이강습회를 열게되는것입니다。 정씨가 여러가정부인께 전수공개할 료리는 모두가 고급료리로 여간 청료리집에 가서는 금료주고도 사먹기어려운 진기한료리인데 그나마 재료는모두 우리네가 손쉽게구할수 잇는것이요 대개는 우리네 반비간에 잇는 원료를 가지고 아무때나 손쉽게 척척지지고 ... 는료리 ... 추려서 가 ... 입니다。 날자는 오는시 ... 일까지 엿새동안 ... 나 료리의가짓수는 ... [illegible]

내나이가 일백삼십다섯!

[illegible]

라우ㅡ니아주 (싼·베르날지노람)에사는 마나님 한분 잇다。그 맥시코는 출생으로 마리아노 ... 라는부인인데 금년에 일백삼십세。아직도정정하야 매일 들에나가 밧일을 하며고 산다합니다。 그의장생비결을 무르면 언제나 명랑한긔분으로 사라간다고 하는그것입니다。

名唱大會

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ㅣ만』 一、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베오틔』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상금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국경전람에 옷장사시세

—마지스금은대중못할것 —울타리를금처서살일

[illegible]

것을 백개식 헤아려 시르면 십원 혹은십오전 오원 사원 이러케는아저 잇습니다 그것을 사다가 구멍가게에서는 록전둘리자리 한토막이면 십전짜리든거리로 만든답니다 그러고보니 금년 나무시세는 작년이때에 비교하면 삼할가량이 올랏습니다。 ... 물건이 적어서 올 ... 지금은나무가 만히드 ... 조곰나린형세를 보이고잇스나 추석대목으로 그 ... 잇답니다 그 ... 이로는 조곰나 ... 사력의탈 ... 달렷나 ... 엄청나게 ... 삼할가량이 나 ... 또다시올려 ... 말려이라합니다 ... 금년은 수해르달미아 ...

다엇습니다! 『장작렬차』

여기는경성의 마차를가리라고는 대장안집만가호에 빨히딸려갈몸

마 나무가적은것은 사실이니 지금 곳겨울에 때일나무를사도록 준비해두엇다가 면칠후에 납세를짐작해서 한보사두는것이 조흘듯합니다

쓰다남은푸성귀 간수하는법

마르지안코 골치안코 한동안은싱싱한채로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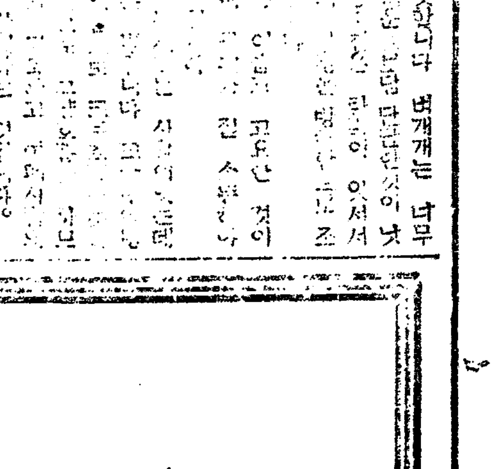
식구가적은 집안은 더말할것도업거니와 식구가만흔집안에서라도 푸성귀의 나머지가 잇슬것입니다 한번사서 한때에 다먹는것이 아니라 다음 때에다시먹게 되는수가 잇습니다그냥두면 고라버리고 맛이업서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골치안코맛도 변치안토록 저장하야두고쓸일잇슬때 내여쓰는것이 조흡니다

파나배추가튼것은 반찬 만드는데 제일만히 쓰이는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고라버리므로 간수를 잘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뿌리에 물을만히주어서 신문지나 하도롱(누런봉투맨드는조희)에 싸서두고쓰면 언제든지 마르지안코 조흡니다

◆ 생강은 흙이모래나 흙속에무더두는데 잘못하면 싹이트며맛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신문지에 싸서、흙이나 모래 속에무더두면 언제든지 싹도나지 안코 맛도변치 안습니다

◆ 송이는 삿갓이 피지안코 단단한놈을 골라서 한개식 한개식 조히에 싸가지고 모래속에 살이 닷지안토록 무더두면 얼마동안은 그냥싱싱한것을 먹을수잇습니다。또한방법은버섯뿌리다음에 부튼 모래를보다 털어버리고 줄기에 실을꿰여서 선선한곳에 너러서 꼽게한다음그것을 항아리등가튼데 너허두면향긔를 일허버리지 안습니다먹을때는 찰씨처서 물에 담거두엇다가 버섯물이 우러나면 그물에 삶머서 먹는것이조흡니다

우리차지



"애기별"

산넘어로 햇님이
숨박꼭질 할때면
수풀속에 새집에는
촛불하나 켜낫지요。

아니아니 속앗죠
켜논촛불 아니라
저녁먹고 놀러나온
애기별님 이지요。

(글쓴사람 윤태웅)

慧超詩五首 (下)

无涯

四、吐火羅、逢漢使入蕃

君恨西蕃遠、余嗟東路長。道荒宏雪嶺、險澗賊途倡。鳥飛驚峭嶷、人去偏[illegible]。平生不捫淚、今日灑千行。

그가 突厥、踴貪、犯引等國을 巡遊한야 又從吐火羅國、東行七日、至胡蜜王住城。當來於吐火羅國、逢漢使入蕃、略題四韻取錄。

한것이 이一篇이다。『胡蜜』은 普義에 『[illegible]』이라 하엿고、唐書에는

護密者……亦吐火羅故地……王居寒迦審城、顯慶時、以地爲鳥飛州

라하얏는데 護密은 곳 지금의 華干地方이오、그王城은 지금의 伊寒迦審(Ishkashm)城이라 한다。詩中 飛鳥二字는 上記唐書의 引文을 參互할것이다。

第五句 鳳字우의 奔字는 實은 奔이 업는것이오、第四句 第七句 雖字는 衍이다。

그는 吐火羅國으로 向하고 漢使는 土蕃으로 向하는 길에 둘이 잠간맛나 다시 東西로 갈리게 되엿다。羈旅와 離懷가 아울러 어떠하엿슬까

五、在吐火羅、逢雪述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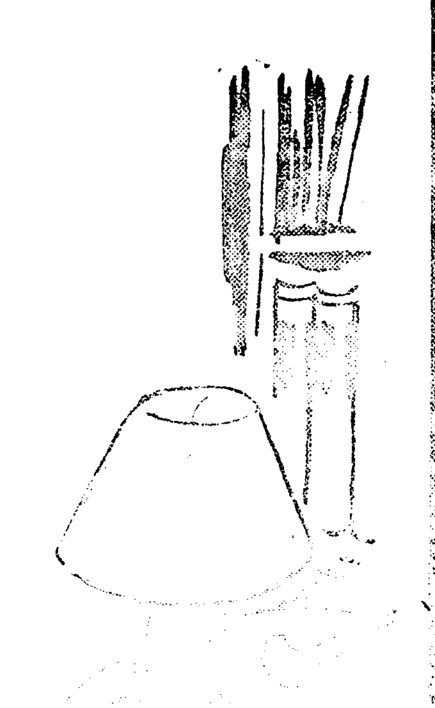
冷雪牽氷合、寒風擘地烈。巨海凍墁壇、江河凌崖囓。龍門絶瀑布、井口盤蛇結。伴火上陔歌、焉能度播密。

겨울에 吐火羅國에잇서 눈을 맛나서 읊은것이다。『播蜜』은 普義에 『播蜜』이니 지금의 華干地方이라하며、그王城인 唐書의 寒迦審城은 지금의 伊寒迦審(Ishkashm)이란城이라고 한다。

○

以上 五首를 通觀하건댄、그의詩는 大部分이 旅路의 情懷를 노래한것이다。即첫篇 大著提寺一首를 除하고 보면、第二首는 그가 南天竺途中에서 멀리 北天을 바라보며 간절한鄕思를 노래한것이오、第三首는自己와가티 멀리異域에와 잇다가故國에 도라가지못하고 죽은 漢僧을 위하야 傷心의 뜻을 表한것이오 第四首 亦是 異域에서 잠깐漢使를 逢別하게되야 구슬픈 離懷를 읊은것이오 마즈막 第五首는 絶域에서 눈을 맛나 거듭 行路難을 탄식한것이니 모다 客底의 辛酸한 情懷를 읊조린것이다。멀리 故國을 떠나 萬里天涯 第二異域에서 아득한 孫의 몸이된 그이지라 아모리求道의 念이 간절하고 殊方의 見聞이 耳目을 놀내일만한것이 만타하드래도 이러듯한 一念鄕思와 萬種旅愁가 업지못하엿슬것이다。하물며 二十前後弱冠의 그로 써랴。(完)

學藝



『네오·휴마니즘』論

—그根本的性格과創造의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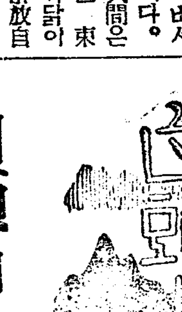
❶ 金 午[illegible]

『人間은 動物과 超人과의 中間에 가로노힌 斷崖에 건너는 그물(綱)이다。건너기도 危殆하고 안건너기도 危殆하다。겁을 내여 逡巡佇立하는 것은 더욱 危險하다。人間의 貴한것은 그가 橋梁이요 目的이 아닌것、人間에게 잇서 사랑스러운것은 그것이 건너가는것이며 沒落되는것이다』(니ー체)

×

『人間을 尊敬하라』는 標語는 『個性을 尊重하라』는 부르지즘이 저ー文藝復興期의 휴맨이즘의 宣言이엿든바와 가티 今日의 네오·휴맨이즘의 ……宣……言인듯십다。하나 나의 보는바에 依하면 今日의 네오·휴맨이즘이 人間을 尊重하려면 먼저 人間을 法則의 束縛으로부터 버서나게 하지안으면 안될것이다。웨ー그러냐하면 오늘의 人間은 法則의 威迫 때문에 自己束縛 自己喪失하고 잇는 까닭이다。웨냐하면 人間의 自己解放自己擴張의 武器로서 使用 되든『理性、法則에 服從하라』는 近代的文化의 모ー토는 이제와서는 人間의自己束縛 自己喪失의 道具가 되여 버렷다。지금우리는 이러한 理性과 法則의束縛을 버서나지 안코는 自己自身을 尊重할수업는 切迫한 狀況에 處하엿다。이즘 휴맨이즘問題가 理性과 法則을 尊重하는 主知主義에 反抗하고 人間을 行動의 觀點에서 統一的으로 把握하려는 傾向은 極히 正當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네오·휴맨이즘은 現實的으로는 온갓 客觀的 法則의 切迫으로부터 人間의 生存을 擁護하며 ……文……化的으로는 온갓 法則的思惟의 重壓으로부터 人間의 創造的 自由를 擁護하지 안호면 안될것이다。

法則的思惟는 두가지 方向에서 [illegible] 方面에서 現代人間으로 하여금 自己束縛 自己喪失의 [illegible] 致케하엿다。하나는 [illegible] 이며 [illegible] 다』그러나 [illegible] 學法則을 根本[illegible] 가지고 [illegible] 近代的[illegible] 다고 볼수 [illegible] 코페르니까스 갈릴네오 [illegible] 노等의 生命을 [illegible] 近代科學 그리하야 뉴ー톤 [illegible] 만흔 科學者들의 [illegible] 야 自己의法則을 [illegible] 잇는 自然科學은 [illegible] 스스로 가지고잇는 法則을 [illegible]



白頭山의 [illegible]

史蹟와 [illegible]

(二)

北詩東扶餘王(金蛙)이 고기잡는이의 告함을듯고 쇠그물로 잡기를 [illegible] 자바내게하엿드니 비로소 잡고 보니 한女子이라 세번이나 그물이 늘어진 주둥이를 문질러내리니 그제야 말문을연지라 王은 天帝의 子妃임을알고 기픈房속에 가두어두엇더니 日光이 비치든 지하면 몸을避하고 그러면 햇그림자가 또따러가 비치고 이러하여 애를배엿다 神雀四年四月 어느날이다 이柳花夫人의左腋미트로알한개를낫다 王이 異[illegible]

[illegible] 라고하엿나 이아이가 [illegible]

[illegible] 고 집어서 엽에너흐매곳 샘키어 [illegible]

저서 바로 때속으로 드러가버렷다 [illegible] 한를로 올나가면 [illegible] 季女마는 날라지지를 못한지라 두형의말이『너는 [illegible] 먹어 아이를 배인까닭이니 [illegible] 라올나가다 季女佛庫倫은 눈물을 먹음은채 떨어저잇다가 [illegible] 의 소리를 내며 서 말도하고 걸음도 걸으므로 하루는 [illegible]

【라】天王堂과 白頭山神 三長 [illegible] 되는 大紅湍에 [illegible]

紅湍閣의 마루밑은 집이 길게 [illegible] 을 눌러 노여잇고 그뒤로 一座天王座(小紅湍祠)이 一角門안에 [illegible] 깨끗한 [illegible] 되어 [illegible] 天王堂三字의 黑板白字의 懸板이 [illegible] 하고 그 아래 [illegible] 三字의 扁額이 걸렷고 [illegible] 고요하다 [illegible] 一對柱聯이요 [illegible] 萬古名山、一國祖宗의 柱聯이잇스며 廟宇안에는 一座 [illegible] 가 西壁에 기대엿고 압헤는 香爐香案이 잇슴으로 [illegible] 을 곱게들고보니『大天王靈神之位』[illegible] 라 그外에 郡守 [illegible] 斗業 風憲 [illegible] 記가 [illegible] 一年辛巳……富寧郡守 高升 [illegible] 勅旨를 밧들어 靈祠에 致祭하고 廟宇를 一新케하엿다는 記蹟文이 잇다。史實에 依하면 天王堂은 距今二百四十年前 肅宗大王十年 甲子에 茂山府設置와 同時에 農事洞西南方 四十里쯤 되는 大紅湍에 祠堂을 建하야 天王堂이라 稱하며 檀君을 奉祀하다가 後哲宗九年 戊午에이 땅에 옴기게된것이다 爾後 해마다 皇室에서 勅使를 派遣參拜하든지 或은 本地郡守를 代參케 하다가 나종에와서 이것조차 廢하고 마럿다。그러나 地方人士는 지금도 一年一次式(六月)祭典을 擧行한다하며 民間의 致誠을 밧어난信仰焦點이 되어잇다한다 茂山으로부터 又는 惠山으로부터 聖岳에 올나가는 沿道에 多少天王堂이 잇스나 이것은 다村人의 信仰者들이 爲하는 私設神祠로되엿속 이天王堂은 國家에서 管掌하든 大靈祠로 된바이다。그뿐아니라 太宗元年에 東林城에 祠宇를세워 해마다 香幣로써 豆滿江을 祭하얏고 英祖四十三年 丁亥秋七月에『白頭山은 我國祖宗의 [illegible]요 北道는 國朝發祥之地라』하야 甲山府八十里雲龍堡北 望德坪에 閣을세워 白頭山을 望祀하얏다 虛項嶺은 茂山甲山의 郡界라 이嶺脊북판에 도 一座祠宇가 森林을 등지고 헛스니 이祠宇가 何時何人의創建인지는 알길이업스나 龍套한 木製로 그속에는 北壁에다어서『天王之位』를 奉安하엿다

[라] 天王堂과 白頭山神 [illegible] 서 農事洞가는 途中에 小紅湍 橋가잇스니 이다리를 건너 左一蹊로 森林을 헤치고 올라가면 石逕의 絶頂에 다흘곳에 數百坪잔듸벌이 樹木속에 둘러잇

現代英詩의動向

여러가지流派와그作家들

(二) 林學洙

그것이 個人의 主觀이 될수업다는點에서 일은바 意識一般이나 라는意味로서 人間은 이一般的理性의 壓力에 自己를 喪失하게 되엿든것이다。그리하야 自然科學의 科學的 性格을 鼓觀한 헤ー겔도 理性의法則을 맨드러 내는데는 누구보담도 能手이엿으며 그에 잇서 世界는

……精……神의 自己發展에依存하는것으로 人間은 時代의 아들로서오직 世界精神의 自己發展에의 한手段으로서 役割할것뿐이라는것이다。이리하야 人間의 自己外는 헤ー겔에게 와서 完成되엿다 볼수잇는것이다。

그는 몬저 詩로서의 表現이 散文으로서의 表現과 달라야할 「아이디아」와 敎理를 形而上學的으로 書籍學者에서 차즐수잇다하야 『時間의本性、人類란破壞된生物이나 그러나完成을 기다릴수잇는것이라는確信 個人에잇서서를除하면 道德的向上이업다는것 個人의良心이란 變하기쉬웁고 迷惑하기쉬웁다는것 아모리괴로웁더라도 癡痺되거나 滿足하는것보다 正確히살고 眞理를認識하는것이 더낫다는것、慾望도 조흐나 良心의 制御가 더조타는것、智慧란欲望에서 解脫된사람에게만 온다는것、利己主義는 惡한것이나 各個人을完成식힘은 아모리書籍한集團生活을 發揚示唆합보다 重要하다는것을 七戒는곱프니즘의나라에서도 罪惡이요、만일以上의 精神的眞理를曖昧히한다면 아모리한 正當한 政治的敎理라도罪惡이라는것』이라한다음 文學은傳達하는것일으로 詩의目的이快樂이라는말이 容認된다면 이詩의다른하나의 敎理 快樂이『엘리옷』의詩에도 存在한다하엿다 그러고그는『엘리옷』의感情을 通한快樂이아니요 正確을通한 그것이라하며『詩人의目的은 與奪할라고 하는것이아니고 斷定할려는것이다。』라는그의말을 指摘하고『그는各個의遊離된『이메지』의正確과 全體的으로 統一된形式으로서 그의詩의批判을밧으려한다』하며 最後에『그러나그의詩는快樂을가저기때문에 生命이잇는것이아니라 政治와宗敎思想과言語의 將來에關한 한要素이기때문에 生命이잇슬것이다。』라는말로매젓다。

以上으로서『엘리옷』의要素의一部를 窺知할수잇거니와 그러면그에依하야培養되고 獨自的立場으로發展한 寶로今日 또는明日의 新興詩派는 어떠한것인가?

여기對하야서는 往年의『빽맨』誌에揭載된『조프리·그릭슨』의『現代의詩에對하야』를 于先參照하자

『一九三二年即엘리옷의詩集『荒原』한나라의 出版된해가 사라진다음 우리에게는 만흔變化가생겻다。二三의 都市에서 想定한것과는反對로 나는그後의 時期가詩를쓰기에決코 그다지不適當하지안엇다고 생각한다。敎訓과批判에 依하야 날카라워진 感覺을가지고 그러時期에 詩를쓰기시작한 靑年詩人가트면 正確한事實과 現象을 大端明瞭히 現實化할수잇섯슬것이다。勿論 그는 바야흐로 울창이化한[illegible]

를쓰기시작한 最初의 두靑年詩人 W·H·오ー든 과 C·D·루이스의 貢獻을 [illegible] 우리는新興詩의 發展史에 [illegible] 라인을 [illegible] 二人이아말로 [illegible] 에 갑작이 [illegible] 英國新興詩派의 [illegible] 一九三三年 미카엘·로버—츠 로 [illegible] 이나왓는데 이들은 [illegible] 集團的으로 [illegible] 세상의 [illegible] 끔 그들이『뉴·씨나쥬』[illegible] 이라고 불리워지는 [illegible] 비록讀者는 그리만치 [illegible] 도 今日二十代 [illegible] 人으로 그들의 [illegible] 람은 一人도 [illegible] 들의 [illegible] 다。

이제 [illegible] 가지條目[illegible] 我와 [illegible] 學的衝突 [illegible] ……人間의 [illegible] 의 產物로서 [illegible] 合할 緊急[illegible] 계말하면 人間의 [illegible] 의 產物로서의 [illegible] 키려는努力 [illegible] 包사이의 論理的[illegible] 하려는것이엿다。

九月蒼空 (詩)

尹泰雄

사랑하는 이에게
나는 九月의蒼空을 드립니다

새암처럼 솟고 솟아
퍼내도 퍼내도 끗업는 마음은
九月의 蒼空과갓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마음속에
太陽처럼 솟아
九月의 蒼空 가티
내마음은 열렵니다
깨끗한 사랑이란
필시 九月의 蒼空입니다

大地를 달리는 젊은마음속엔
九月의 蒼空이 깃드려잇습니다。

아아 快晴。九月蒼空의 얼골이야
맑기도 하옵니다。

科學의수수꺽기

데린저現象檢討

五十四日週期說도崩壞되나?

❶ 延專敎授 崔 [illegible]

昨年 十月頃에 어떤 新聞紙上에『天體어데서부터인지 地球를 向하야 前에 도모지 觀測치못하든 한 奇異한 信號가 온다』는 記事가 發表되엿다 이不可思議의 信號가 地球를 向하야 오는동안에는 短波無電 特히 五十米以下의 波長의 無電은 大端한 支障을 입어 全然히 通信이 不可能하게된다는것이다。그런데 特別히 奇異한것은 이現象이 五十四日을 週期[illegible]

日은 [illegible] 한以後 [illegible] 東京은 午後 [illegible] 城은 午後一時 [illegible] 信[illegible] 五月二十五日 [illegible] 年[illegible] 十分 [illegible] 日을 [illegible] 五月十二日 [illegible] 十日에 [illegible] 十月二十一日[illegible] 한後에 [illegible] 이現象이 [illegible] 하엿다 [illegible] 十月 [illegible] 調하게[illegible] 세이슴을 [illegible] 끄게되엿다

太陽黑點[illegible]

이現象의 [illegible] 것은 五十四日[illegible] 과 太陽의 [illegible] 하야 [illegible] 만限하야 [illegible] 는것이다 十四日이란 [illegible] 轉週 [illegible] 當한 [illegible] 와 [illegible] 現象은 [illegible] 러나는 [illegible] 스리라고 [illegible] 變化라고하면 [illegible] 電離化에 不外할것이다 [illegible] 때때로나타나고 사라지며 그形狀을變하야 [illegible] 한것이다 黑點은 그周圍의 [illegible] 야 溫度가多小低한고로 검게(黑色)보이는것이나 黑點自體의 溫度도 四五千度나 되는고로 常光을 發하고잇다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延川郡都南面玉泉里 金益薰

塵外霞標何處尋·
秋風艶拂綠波心·
紅粧百隊爭窺鏡·
翠蓋千重簇似林·
泥汚不染周翁愛·
夜採相思越女吟·
最憶三庚炎熱地·
詩腸爽滌碧筩斟

[illegible] 하기五回兒童과 民衆의生活에 即하야 趣味와 實益을兼한 森永카라멜藝術은 드디여獨自의 藝術境을 開拓하엿습니다 이 異常한成果는 全히應募各位의後援에 依한것이라고 이에깁히謝禮하는바입니다

學童之部

二十名

等一 松沼タカ　等一 間瀨晃次　等一 和田弘　等一 小松崎日出雄　等二 川島霞枝　等二 野島喜久子　等三 西野義明　等三 背木千代子　等三 三枝秀吉　等四 川合とみ子　等四 前田史　等四 永井靜江　等五 山川えみ　等五 昇外 [illegible]　等五 日向野久子　等六 遠江悅次郎　等六 遠藤正夫　等六 石津佳子　等二 細川吉友　等一 生井藤一郎

七十名

[illegible]

三百名

[illegible]

一般之部

特選 十名

山形市東原町アコヤ小路 結城和子
姫路市紺屋町三丁目 狩田龍豐
東京市淺草區千束町二ノ六二 小久保德太
東京市蒲田區蒲沼二〇九 鈴木正夫
埼玉縣秩父町大宮一三九七 根岸寛次郎
大阪港區七條通り二ノ一一太田伊之助方 太田和子
兵庫縣武庫郡 魚崎尋常高等小學校 深田長治
大阪市 今宮第五小學校 木村郁太郎
東京市淺草區 千東小學校 矢田清四郎
東京市麻布區 三河台小學校 瀨內幸行

壹等 貳拾名

(東京市)矢田清四郎、大垣竹雄、大塚游吾、小久保德太、小坂藤次男、松木國光、齊藤良三、戸部三郎(大阪市)佐藤文夫、高瀨孝親(栃木縣)佐藤康一郎、鈴木長治、石川和吉(山梨縣)加藤猛(姫路市)狩田龍豐(群馬縣)星野美雄(鹿兒島市)丸尾クニ(靜岡縣)杉山京一(豐橋市)藤原忠次(岐阜縣)杉山年一

貳等 五拾名

(東京市)中村寅夫、寶田常之助、石井穰之、佐々木豐、石崎寅人、澤田守、小久保德太、堀內幸行、矢野三樹三、大鋼竹雄、潮山希平、岩間久、長澤博、[illegible]

新聞の都合上三等以下二万七千名樣は賞品發送を以て發表にかへます

森永製菓株式會社

大陸고무

[illegible] 株式會社

李圭元

[illegible] 二八一番

劇團豪華船第一回公演

九月二十九日부터 東洋劇場에서는今般東洋劇場을大合同하야優秀한演劇團을結成하야新劇團豪華船에서 [illegible]

李雲芳 作　人情劇 正義의復讐 二幕三場

鄭泰星 脚色　漫劇 나의靑春너의靑春 九景

小喜劇 好事多魔 一幕二場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五二

ネオギー

一月量三六〇錠入 金壹圓五十錢

胃腸病이 一瓶으로 輕快

이도疲勞치안코 強軀가된다

新潟縣 越野新三

[illegible] 果를보지못하엿습니다 [illegible] 友人에게서 [illegible] 네오기ー를服用하엿 [illegible] 昨年以來업 [illegible] 二週間後에는六度 [illegible] 四分으로熱이내렷습니다 [illegible] 亦昭六度四分밧게 이나너엇으나 [illegible]

注意 越野氏推奬네오우기ー는約一月量三六〇錠入一圓五十錢他에德用瓶三圓九圓으로 全國藥店에잇다。偶遺品注意直接入手를 바라는분은 藥書로 東京小石川關口町大瀧側一〇六日本微生物研究所로申込하면 送料不要代引으로 [illegible] 海外는반듯이要先金

連載野談 布衾記 (二九)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룰캐든총각 (十五)

진평대왕께서 선화공주를 장차 벌하시려는동 여항에서는더욱 그고이한 소문이 놉게 떠돈다는 소식을 드르시고 크게 분개하사 한편으로는 선화공주를 죽이려는 회형의 준비를재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다시 그고이한 노래를 부르는것과 그밧게 선화공주에게 대한 말을하는자는 중한벌을 쓰되 특히 어린아이는 그부모로하야금 대신벌을 당케할것을 명령하섯다。

그리고 곳 선화공주를 잡어내리어 그무시무시한 벌을 쓰서라하니 궁중안은 우름소리로써 떨은소리가 안들니는듯。그 황겁한 거조가 참으로 신라나라에 처음되는 큰소동이엿다。

이때 여러대관들과 여섯마을 촌장들은 진평대왕의 진로하신품이 너무나 지극하시고 그위엄이 너무나 지엄하사 감이입을 열어 무어이라 한마듸아라도 알외올 용기가업섯다。

그때에 다만 몸만 떨고잇는중 상대등(上大等)숣아비 (首乙夫)가 어전(御前)에 갓가히 나아가 머리를 조으며

『로신(老臣)숣아비(首乙夫)、감히 알외오。』

하고 네번 절한뒤 몸을 굽히고 섯다。

이 숣아비는 벼슬이 제일노픈 상대등에 일으섯슬뿐만아니라 나히만흔 원로대관 (元老大官)이며 또는 가장 충성되고가장 정직하야 조정의 여러대관들이 울러어 보는것은 물론이오 진평대왕께서도 매우 점잔흔 대관으로써 생각하사 다른대관들 보다는 숣아비의 말을 매우 무겁게 들으시는 터이엿다。

그런데 숣아비가 알외올말슴이잇다는것을 드르신 진평대왕께서는 다시 주의하시는 괴색을 나타내시며

『상대등이 무슨할말이잇소?』

하시고 숣아비의 괴색을 살피시엿다。

『황송하오나 알외오。로신이 생각하압건대 선화공주아기씨는 그어지신덕이 별로짝이업스시게 놉흐신것을 알외오。그러하압거늘 황송하압게도 백성의 집에서도 그런일이 드물겟삽거늘 허물며 공주아기씨의 놉흐신 범절, 또한 구중궁궐에 게압신 그러지존하신 자리에서 그런일이 잇스리라는것은 만번생각하와도 당치아니한 일이것을 알외오。공주아기씨를 중벌하압시려는 서령(瑞念)은 나라의 중법을 밝히시려는데 게신것을 더욱 망극한줄노 알외오。그러하오나 공주아기씨의 번명하시는것은 용납지아니하시고 오직 그고이한 소문만 용납하사 공주아기씨를중벌에 처하섯다가 만일 그것이 뒷날에 깨긋히 들어나는때는 공주아기씨에 대하와중벌을 내리신것을 백번 후회하서도 밋치지못하실것이 황송하올것은 더 망극하와 알외올길이 업삽거니와 법을밝히시려다 오호려 법을 호리게 하압고 선조대왕께서 창조하압신 궁중의 존엄을 혹시욕되게할가하는 두려움이잇는것을 알외오 대체로 금번 공주아기씨에 대한꼬고이한 소문은 사람이 맨들어 낸것이 아니압고 반드시 귀신의 작희로써 잡시 공주아기씨의맑으신덕을 가리움인것을 알외오。그러하압거니 저불을 끄라시는 령을 내리시압고 또한 나라에 큰일이 잇는때는 여섯마을 촌장뿐아니라 국사(國師)에게묻으시는 전례가게시오니 공국사도 불으시사 물으시기를 알외오。』

하고 숣아비는 그붉은 얼굴에 도흘한 괴색을 띄우고 머리를 조으며 알외엿다。

이때 여러대관과 여섯마을촌장도 일제히 이러나

『황송하오나 상대등 숣아비의 알외압는 백번지당한것을 알외오。』

하고 역시 여러 대관들과 여섯마을 촌장들도 머리를 조으며 숣아비의 의견을 편드려말하얏다。

『옹。국사에게 뭇는것은 짐이 이젓군!。그럼 저불은 아직 끄고 국사를 불너!。』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국사를 부르라하섯다

"綠色園" 佛國푸라그·필므作品「處女湖」의「뤼크·아레그레」가 監督하고「시몬·누시몬」과「장·피엘·오─몬」이 主演하얏다

演芸

네발가진즘생이자만 銀幕에서는明星

人間도 無色할 엄청난高俸

멧해前 米國映畵가 西部劇을 大量으로 生産할때 그곳에는 사람以外에 動物로서 말과 개가 出演하엿고『실버·킹』이라는 名馬와『린틴틴』이라는 名犬의主演映畵가 잇섯다는것은 우리의 記憶에 남어잇거니와 終林에서 映畵에 出演하고잇는 名馬와名犬들을 紹介하면

바스터─ 호리호리한 雜種이다

이개는世界에서 第一有名한개다 첫재 怜悧하기짝업고 말은아모말이나 다알어들으며 물건을헤아릴줄 알뿐아니라 읽을줄까지 알고잇다

그뿐만이아니라 左右의區別과 色彩의識別에 이르기까지구김이 조곰도업다한다

사람의 命令을 들을뿐아니라 文字나 動作을 全部아라채리며 여러가지 動作의連續을 命令한順序대로 꼭꼭履行한다 이개의 하로勞賃이 七十五弗이라 하니 高等官의 月給보다도 더만타

죄스 농청거리고 빼겨도리 ─人間이 아모리 이개의 收入보다 만흔이가잇거던 나오라하는듯이 收入이 第一만흔名犬이다 하로勞賃이 百五十弗이니 相當한收入이다 이개는 喜劇映畵에 主演하고 라─산映畵에는 업지못할 主役을한다 이개는 피아노를곳잘치고 雜誌를 봉讀할며 『부라운』이나 『수바리에』의 흉내도 곳잘낸다 訪問客이잇스면 握手(?)까지하며 남이自己를 미워하며 귀여워하는지를 사람以上으로 잘 눈치채린다 부엌간에서는 그릇도 씨치며 불도때인다한다

실버─ 西部劇에 잘나오든때에『빠크·손』하─슥 라는俳優의 愛馬로서『빠크』가이말을 살때는 不過百弗밧게 주지안혓다한다 그러나지금은 잘줄敢히 말할수업슬만큼名馬가 되엿스며 이말의 才操로는 自動車門을 열고사람을태이는것이 第一能하다한다 그말은 今年二十二歲라하니 나히도相當히 만흔셈이다

×

이밧게 鳥類로서 有名한것은 『세실·비·데밀』의 『十字軍』에出演한 매(鷹)는 하로勞賃이 卄五弗이며 사람의품안에 안겨서놀도록 사람과 親해저 잇다

끄트로 映畵와 由緖기픈 動物로는 죽은지 오래된 名犬린·틴·틴!그의 相續者는 獨逸種의探偵犬"로보"가 잇다 이개는『나의脫走記』에 出演하얏고『마이·맨·궃후레이』에 出演한「쪼세핀」이라는 원숭이와 故『루돌프·바렌치노』의 愛馬『짜단』이 잇다 이말은 最近銀幕에 再次나오게되여 『데드릿히』를 태워가지고 『沙漠의花園』에 出演하리라한다

映畵界挿話

바리모어의神經質

젊을때는 아모리치도 안터니그도 나히가五十고개를넘으니 하는수업는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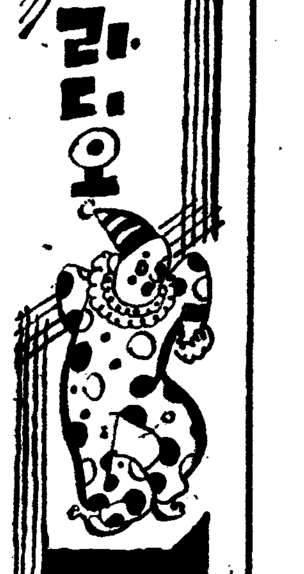
一世의美男─『존·바리모어』는 요사히 뉴스카메라를 第一실혀한다 요지음終林의 어떤 音樂會에 나갓는데 이것을 노리고잇던 카메라班의「후랫슈」를 터주엇다 不意의카메라 襲擊을當한"바리모어"는 화를내여서 웨치엿스나 寫眞은벌서 박힌뒤이라 카메라班은 다러나버리고 그의 웨치는소리를 드른觀衆은 『바그너─의 音樂이 始作되는줄알엇다』

하고嘲弄하엿다 이말을 들은『바리모어』는 더욱화를내여 五十男子의 神經質이 爆發되엿다

曆 十月一日(木) 陰丁酉八月小(十六日) 丙辰·土·畵·危

●秋分二十三日(陰八月) ●寒露八日(陰二十三日)

라디오



三十日(水曜)

◇午後六時 唱歌劇「海金剛」(鄭寅燮作) 少女(나중에人魚)…文英姬 나그네…金相德 아버지…金觀星 어머니…李容洸 船父(一)…劉根春 同(二)…朴漢乘 海女(一)…金錦蘭 同(二)…韓瓊鎬 銀波 갈매기(一)…韓瓊鎬 同(二)…劉甲順 두루미會 演出 金相德 效果 效果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伴奏 두루미會伴奏團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가을의天體 盧炳俊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仲秋明月에나타난詩歌 李光洙

仲秋明月의밤

◇同八時 農夫歌外 一、花草四巨里 二、호미타령 三、農夫歌 姜太弘 吳太石 丁南希 韓相鮮 曺鶴鵪 林小香

◇同八時三〇分 歌曲外 一、界面數葉 二、弄 三、羽樂 四、環界樂 五、編 金鳳仙 金春子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京城立唱 一、놀량 二、앞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劇 東京放送童話劇協會

◇同六時三〇分(大)短歌會

◇同八時二〇分(東)라듸오聯盟

◇同九時五分(名)今泉流觀月歌會 宇治山田市倉田山에서中繼

一日(木曜)

◇午後〇時五〇分 레코─드音樂

◇同一時二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바라령 鼓手 池龍九 韓鳳煥

◇同六時 童話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講演 始政二十六週年을當하야 亞西亞協會幹事 高羲駿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羽調 二、중자진한닙 三、자진한닙 界樂 四、弄 五、編 六、別羽調 咸角築 金萬王 大笒 方龍鉉 奚琴 金奉業 杖鼓 金仁吳

◇同八時 野談『大大振』 申鼎言

◇同八、三〇 時調外 一、時調 二、小春香歌 三、執杖歌 四、방아타령 金眞紅 鄭牧丹

◇同九時 大笒獨奏 一、散調 二、鳳凰吹 朴鍾基 杖鼓 韓成俊

◇同九時一五分 다듬이소리 開城高麗劇會館滿月臺로부터全國中繼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五)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東)婦人時間

◇同一一時 講演

◇午後〇時五〇分 맨도린合奏

◇同一時一〇分 長唄 中村六八郞、伊藤保春

◇同四時一〇(札)大元帥陛下大本營御着御模樣

◇同六時 童話 山田俊雄

◇同七時三〇(札)講演 西尾壽造

◇同八時 (東)物語 大友壯之 春日芳子

◇同八時三〇分(東)長唄 吉住小桃次

◇同九時 (名)歌舞曲 豆千代

◇同九時一五分 다듬이소리

二日(金曜)

◇午後零時五分 古談 敎倫箴銘 李雲林

◇同一時十五分 衛生講演 眼疾과遺傳 羅元和

◇同六時 童謠齊唱 一、딱딱 二、넘비댐 三、야아 어라 四、남남이 五、볼쪽 아가야 六、쟁아쟁아고추쟁 별남쪽별 七、보슬눈 八、나이 九、별에기 西大門公立普通學校兒童 伴奏 李慶煥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李德鳳

◇同七時三〇分 講演 라듸오와文化 李晶燮

◇同八時〇〇分 (東)獨唱과管絃樂 伊太利民謠式歌曲三篇、토쓰키作曲外 獨唱 벨르과메리能子 指揮 山田耕作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滿潮入嶽 二、唱劇調 春香歌中바석퇴 金晶龍 鼓手 丁元燮

◇同九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긴아리 四、打鈴 五、朴淵瀑布 崔貞子 金秋月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英語講座(五) 靈谷榮

◇午後六時 (札) 童話劇 札幌中央創成小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 (名) 英語講座 岡部次郞

◇同七時三〇分 (東) 座談會 國立公園에對하야

◇同八時 서울춤 東券番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梅原秀夫

◇同九時一〇分 (札) 追分節 鈴木賓治外

讀者室

▲讀者諸兄特히 京城市內諸兄에게 뭇사오니 生의從兄이七八年前에玄海灘을건너 大阪港에간지 約一年間書信往復이有한後는 至于今消息이업섯合니다 中 風言에 近日京城市內에잇다는말이 들여오니 或아시는분이계시면 社交室 또는 左記住所로下敎하여주시면 結草報恩하겟合니다 從兄의名은 市枝茂夫(大阪자서지으名)또는朴魯翰입니다 忠南維鳩 朴秋湖

▲生은 某寫眞學校를 卒業한 當年二十一歲 男子이온대 男女間 寫眞術을 배우라하시는분이 잇거든 無料로 가르처드리려하오니 本社 社交室로 通知하야 주시사요

▲求婚 本人은 三十二歲된 男子이온대 初婚에 失敗하고 方今 求婚中이외다 職業은 官吏이옵고 家産도 相當합니다 相對女性은 中學卒業生으로 二十五六歲內의 身體康健하고 現代的女性으로 音樂과 文學에 趣味를 가지신 女性을 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이 게시면 寫眞과 略歷을 보내주시던지 直接 宿所로 차저주시던지하시압 但初婚再婚을 가리지안습니다 그리고 前室에서는 男女不拘하고 업습니다 市內三淸洞六二의一八 曉光生

▲中學三年程度以下의 學科指導를 하고자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欄을 通하야 알리여주시기를 바랍니다。 京城蓮建町 某專門生

▲讀者社交室을 通하여 誠意잇는 文學에 뜻을 둔 農村文人에게 告합니다 小生은 中學中途退學生이오나 本來 詩外創作에 뜻을 두고 以來 二三年間 硏究하여오든中 아직 作品을 發表하지안코잇사오니 벗들이여 우리들은 우리힘으로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書信으로라도 相互論評하자는 意味下에서 널리 農村自習하는 諸友들에게 벗되기를 비노니 左記住所로 편지하여 住所를 알리워 주시면 感謝하겟合니다。 平北新市 元炳弼

▲淸代名小說『紅樓夢』의 英譯書籍을 아시는분은 업습니까 譯者와 出版社는 不明이오나 (Dream in red chamber)란 表題로 出版된 模樣이오니 아시는분은 社交室을 通해 下敎해주십시요 開城 (村讀者)

▲平壤게신 白山虎容益兄 相別之後 一次밧게 消息알리고이때까지 消息업스니 어이된셈인가? 弟는 前住所로 몃차래나 便紙하엿스나 返送되여 더욱더 옥 兄이 그리웟스나 事情이事情이라 그러케되엿네 지난날의 親友(孤舟 白山守)의 消息을알려주게 이곳弟도 其間 別無他故일세 이만 慶北尙基市 李永達

▲當年二十八歲의身體健壯 思想溫健한靑年 法專出身 高等官七等待遇의遞信官吏 資産八萬圓假量 有父母獨子 相對者高女校又는專門出身의 藝術을理解하며 官吏의妻된는社交的素質과 敎養이잇는분 年齡二十歲內外容色佳秀性質溫順하야愛嬌잇는女性을求함 全南求禮面鳳南里 李鍾晟

▲本籍은陽州郡和道面出生한申永求(四十餘歲)氏를 五六年前에 여진後只今까지 住所不明으로 답답하오니 누구시든지 아시는분이게시면 左記住所로 通知만하여주시면感謝히謝禮하겟合니다 滿洲國寧安縣城內龍井貿易會社 兪欣

▲全北一小生에게 드리나이다 『貴下가 九月廿五日付朝鮮日報紙上으로 下問하옵신 李榮俊先生의住所는 京城セブランス病院이외다』此를朝鮮日報讀者社交室을通하야 아르켜드리나이다 咸興惠濟病院 崔鎬

▲求婚女性에게告함 저는今年二十六歲되는未婚靑年이온데 昨年十月에 早稻田大學文科에學籍을고만두고 身體가 健康치못하여 釋王寺와서 療養中이든바이제는 健康證明도맛고快差하여 고만學籍은 永離別을하고 今後에는 社會에 投身하여事業에 着手코저하오니 理解잇는配偶者를 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 寫眞添付하여書信하여주시요 (但高普三學年程度卒業도無妨) 咸南釋王寺塔城里三九 洪鎭觀方 李淳鏞

▲求婚 初婚女와 性格이不合하고 理由下에서 協議離婚을하고 左記條件下에 求婚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寫眞同封하야 履歷을 通知하여주시오 經치안흠 本人은三十歲된次子 兩親生存 財産은中流의生活安定을 保障할만한程度 學力은 中學卒業 身體는 健康 性格은 極溫順 趣味는讀書와運動 所生은無하오니 相對便의年齡은 十八歲부터 三十까지 學力은普校卒業程度以上 身體健康 性格溫順 理解性豐富 初婚再婚을不拘하오며 但係累업는분을希望합니다 全南兵營邑內 金光鉉

▲新品호루룩子要爐一號附屬品並하여 廉價로讓渡코저하오니有志士는 市內昌信町五八三ノ一四號孔金淳에게 通知하시압

▲早稻田中學講義二個年全部를 一金七圓也에 賣放하겟스니 希望者는往復葉書로照會하시압 咸南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聖敏

▲男敎員과 女敎員을 求합니다 高等學校出身으로 師範學校나 體育學校를 卒業하엿거나 不然이면 實地敎員生活三年以上經驗잇는이로 體操잘시키는 男敎員을高聘합니다 女敎員도 高等學校出身으로 師範學校나 保育學校를卒業하엿거나 不然이면 三年以上敎員生活經驗잇는이로 風琴잘타고 音樂잘가리치는 女敎員을求합니다 履歷書持參하시고 九月末日까지 每日午後五時로六時에面會를敬要 京城府靑葉町二丁目九十八番地 永明學堂 康灃泰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四君子畵包含함)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至九月廿七日로써마음 一、搬入期日 九月三十日午後五時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리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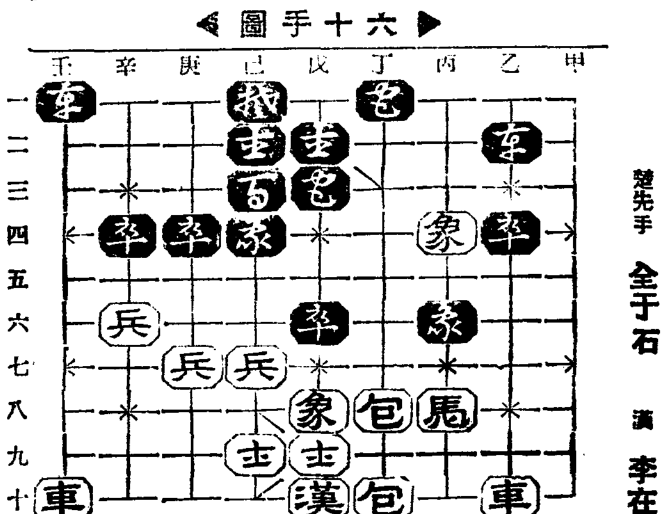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楚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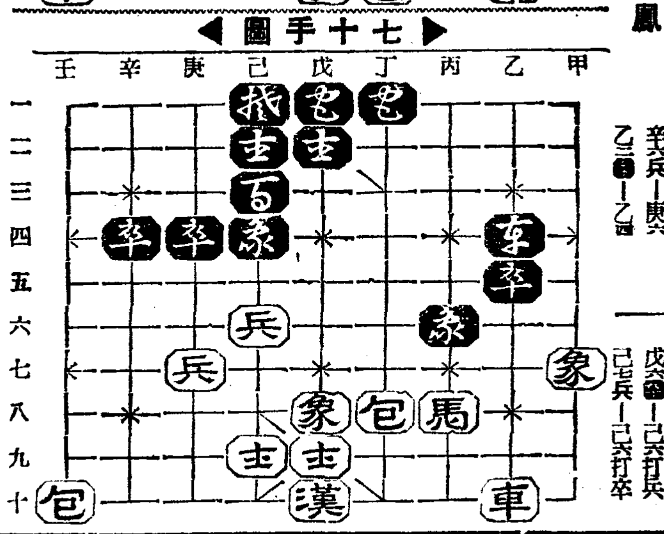
壬一象─壬十打車
丁十包─壬十打車
乙四象─乙五
辛六兵─庚六
乙一象─乙一

丙一象─甲七
戊三象─戊一
庚六兵─己六
戊六象─己六打兵
己七兵─己六打卒

◀第十六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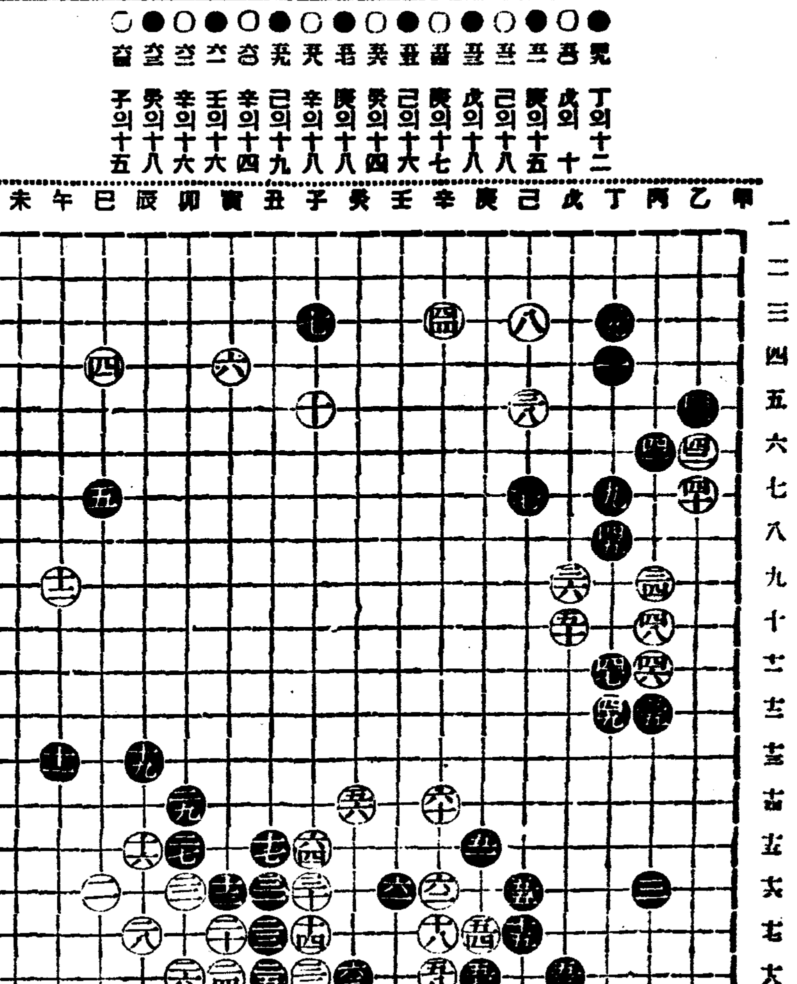
◀第十七手圖▶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秦極文
黑 先 丁奎春

● 丁의十二 ○ 戊의十 ● 庚의十五 ○ 己의十八 ● 戊의十八 ○ 庚의十七 ● 己의十六 ○ 癸의十四 ● 庚의十八 ○ 辛의十八 ● 己의十九 ○ 辛의十四 ● 壬의十六 ○ 辛의十六 ● 癸의十八 ○ 子의十五



對局者談 白 癸十六七의陣內가 地勢는 狹少하나 進出經途가 障碍는 別無하다 黑 이 壬의十六으로 癸의十八點을 試함은 速度가아닌가

中央館 永樂町 電話本局

當る廿八日ヨリ(三日間) 最低料金

大都映畵時代劇部超特作 原作 鷺光明 監督 石山稔 肉彈銃火隊 阿部九州男主演 近衛十四郞·月宮乙女·藤間林太郞助演

大都映畵現代劇部特作 原作 松波三郞 監督 太田辰三 まゝならぬ女 琴糸路主演 水島道太郞·藤間林太郞·久野あかね助演

コロムビア超特作西部活劇 原作ウエイ・リチャードスン 監督オントウ・ブラワー 無宿の狼群 ティム・マッコイ主演

團成社

廿九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六時廿分)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畵 東劇王에데이칸다主演 노만더로그監督 百發百中칸다 一年一次式興趣잇는칸다의醫科活劇에 鼻腹과哄笑에마음끗醉하여보십시요

◆코롬비아社超特作映畵 체스타모리스主演 無法地獄 늘보아도그痛快한스릴은이질수업는깽그映畵

◆코롬비아社最近의快作品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畵 阪東妻三郞主演 夜明ケ島 高津慶子、歌川八重子助演

(次週封切)生活의道、國際間諜團 近近封切마즈루카、艦隊를따라서 루이스對介메링肉彈十五回戰모렌 카르로의銀行破産者

團成社

九月廿八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巨大雄大篇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 二回續映 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존·포─드氏監督 西部活劇 肉彈鬼中隊 빅타─·마그라레氏主演 梗槪歐洲大戰中에메소포다미야沙漠에서일어나는描寫한苦戰의一頁이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島津保次郞監督作品 時代名篇 高原の虹 阪東好太郞氏主演 南光明氏高尾光子千曲里子花岡菊原露子北子共演

파테社作品無聲映畵 喜劇 모단征服

次週上映할映畵 三銃士白き王者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番

九月三十日낫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十日은仲秋明節임으로特別晝夜二回上映

◇유나이뎃트社超特作發聲日本版 名畵 가시면몰라요 監督……빠울신나氏 主演 에라사베─르벨크나孃 『가시면몰나요』의벨크나는寫로華麗하다!이映畵에서도벨크나는諸氏가새로생길것이다、데─마─는現代의잇는藝術의悲劇性을품고잇다美의흔들리는人間과永遠의夢想과現實生活과의相剋를그리고最初의베니스의水景、또다시엇슬것이다

◇유나이뎃트社超特作發聲日本版 레뷰─劇 薔薇色遊覽船 監督 리아이안스氏作品 主演 ……진레시나라 카─룰孃

◇モリモト社提供日本語全發聲版 時代劇 荒神山 主演 月形龍之助氏 阿部九州男氏

次週=十月三日낫부터 소리업는凱歌 가바레의여왕

??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一三三番

朝鮮日報社 安岳支局 電話二八番
朝鮮日報社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東海沿岸의水亂慘跡

定平洛伽山沙汰로 十一個里全滅狀態

家屋流失等目不忍見의狀態 千餘災民의前途暗澹

【新上】수천의생령과 수만정보의옥야(沃野)를 한숨에 삼켜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상대수란을이르킨 수마(水魔)는농업과어업(漁業)을 생업으로삼고그날그날을 평화스럽게 사라가든동해안(東海岸)의 열한동리를짓밟아 천여명의 리재민은 하날을 우러러통곡하고잇다

지난이십오일 오전열한시경부터부슬부슬 나리기시작한 비는동일오후 세시경에 이르러별안간천둥으로 변하야 약한시간동안우박과비는 댓줄기가티 나려쏘다저동해(東海)를 면대하야잇는정평군귀림면락가산(定平郡歸林面洛伽山) 기슭에잇는 신평 하동하남 중하 동하 동상 송흥 장흥 유성 신흥 동성(新坪, 河東, 河南, 仲下, 東下, 東上, 松興, 長興, 楡城, 新成, 東成) 등열한동리는락가산이 문허저 나리며 집떼가튼 물결에 밀려수시간에거이전멸상태에 빠저천여명의 리재민을내엿다 이번우박비는 팔십일(?)이 처음듯는 폭우(暴雨)라는데 비가나리는 동안은집안에 안즌사람들이 벽소리에 이야기조차 할수업섯고 지척에잇는사람들이 비에막혀 보이지안헛다한다 낙가산에 울창한아름드리의 나무와 그곳에깃드리고잇든 노루가튼 짐생들도 집떼가튼 물결에는 어찌는수업서쏘처나리기 시작하엿스며 간간히산이 문허저인가이든 전답이든닥치는대로 업퍼버리고 말아어제의 황파만경의 옥야가오늘에는 바위가 성금성금한 본새를 니르워 문자그대로의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감이잇다

田畓埋沒八〇町步

農作被害四萬圓

本報新上支局員調査

재지는 궁벽한촌으로 원내교통이불편하든곳인데 이번의수해로도로가매몰되고 교량이파손되여교통이 두절되여 자세한 전체피해상황은 지금알수업스며 귀림면과 주재소에서 협력조사중으로 이삼일후에야 조사원들이도라올것으로 보인다 자세한피해상황은 일후로미루거니와 위선대체만이라도 보도코저 본보신상지국(新上支局)에서는 지난이십칠일 조사대를 재지로파견하야 이십팔일까지에 답사조사하엿는데 귀림주재소에서 수집한재료를 참고로하야 대략아래와가튼 피해수자를알랏스며 불행중 다행으로 대낫재앗스므로 인명사망은 크게업섯다

被害狀況

流失戶數一三戶 浸水戶數一五〇戶 半壞戶數四〇戶 壓死 一名 流失畓牛一頭 埋沒田畓八〇町步 農作物被害四萬圓 鰮魚肥工場被壞三 漁業流失五千圓 漁船被壞四 海岸線을通한道路埋沒十里半(餘里) 橋梁流失二〇餘

대체이상과가튼데 매몰된전답팔십정보는 전여복구될 가망이업스며 매몰된도로십리반중 약십리는 금년중에는 복구할수업슬것으로보인다

生涯일흔千餘災民

時急救助를要望

本報支局義捐接受

저들이 피와땀으로 일년동안 갈구워노흔 농작물은 비교적풍작이여서 황파만경을 바라보며 손꼽아 추수할날을 기다리다가 순간에일코 하날을우러러 통곡하는리재민은 천명을 념울것으로 금동을엇지넘길것이며 식량과가옥을 일흔리재민들은 당장에 먹고살길이 문제이다 조사하며 읫문허러간곳기를 부잡고 몸메여 우는울음에는 무어라 위문하며 대답할말이 업섯다

지금 절량(絶糧)된재민들에게는 주재소와면과유지자들이 응급구제하고잇스나 구체적 구제책은서지안혀 예술롤를 염녀하고잇스니 만천하의동정을 바랄뿐이며 본보신상지국에서도의연금품을 접수하기로되여스니 따뜻한 동정의빨르가 잇기를바란다

韓致燁氏特志

이번재지인 귀림면중하리에거주하는 한치엽(韓致燁)씨는 수십번을두고 사회사업과 빈민구제에 남모르게힘슨바잇거니와

◇定平郡下十一洞을全滅시킨風水害慘狀畵報 昨日의沃畓이俄然岩石重重한 白沙場—(上)廢墟化한河南里一帶 (中)同河東里一帶 (下)同東下里一帶 (물흐르는곳이 어제人날의 집터)

淸津沿岸에서도

船舶數十隻破損

被害額이萬餘圓豫想

【淸津】이십칠일밤에모진비바람으로 청진근해에는 격랑(激浪)이 자못심하야 연안일대 히특해가 심하엿는데 청진서에서조사하야 판명된것만으로 발동기선(發動機船)두척 목선(木船)이십수척이 파손되엿다는바 아죽인명피해는 판명되지 안헛스나선박피해액만이 만여원에 달하리라하는 근래보기드문 대폭풍의피해를 보앗다한다

救濟演奏延期

오는十月十日로

【洪城】충남홍성군회당주최와본보홍성지국후원으로 군내수해민을위하야 기생연주회를 십월일일에 개최키로하엿든바 당시경찰서의 불허가로인하야 십월십일로 연기하엿다고한다

秋夕警戒副産物

賭博軍檢擧

【木浦】목포경찰서에서는 음력팔월 추석(秋夕)을 경계하기위하야 약일주일전부터 전서원총동원으로 목포시가를 철통가티경계하든중 지난이십칠일밤부터 이십팔일아침까지 수삼처에서 도박군(賭博軍)십사인을 경계의부산물로 검거유치한바 유치장에서 추석을 경과할사람이 이백십명이나되야 유치장은 희유의대만원이라한다

私立德川幼稚園

童話律動의밤

大盛況을일위

【德川】평남덕천읍 사립덕천유치원에서는 본보덕천지국의 후원을바더 유치원창립이래 처음으로동요 동화 률동(童謠, 童話, 律動)의밤을 지난이십오일 밤유치원마당에서 개최하엿는데 예느진가을밤가 오락가락하는불순한일기임에도불고하고정각전부터 천집한군중은무려수백명에달햇다상

永興郡下에

栗大雨雹暴注

【咸興】함남영흥군진흥면(永興郡鎭興面) 일대에는 지난이십오일오후세시부터 약반시간에걸처밤(栗)만큼식한 큰우박(雨雹)이 퍼부으며 대폭풍이불어 농작물의 피해가 극히 혹심하다는데 그중에서도 소채(蔬菜)는 전멸상태에 빠젓다고한다

都計進捗에犧牲

千餘戶에退去令

府外二十里地點에敷地分賣

大淸津建設에伴한明暗相

【淸津】날로 발전과 호경기를구가하는 반면에는 발전과 평창때문에 그와 작별하지안흐면안되고 설지여 생활의 근거까지 빼앗기고마는 비극이 지금청진에도 연출되고잇다

대청진건설(大淸津建設)로 터를닥고잇는 요사이 오는 시월일일부터 실시되는 시구개정(市區改正)에 말성이된 청진부의 세궁민부락(細窮民部落)천여호는 저간 부당국에서 퇴거명령을밧고 갈곳이업서 방황하고잇든중 부에서는 그 대책으로 부외 수성천(輸城川)밖 약이십리되는 지점에 귀지로 어탄오천평을 구입하야 그들 세궁민에게 십여평 내지 십오평식분할 예정으로 대부하야 집을짓고 살게한후 월부(月賦)로지가(地價)를 바다드리리라한다 어쨋든 당국의 방침대로 순조롭게 수속이 만칟수잇는 사람들은 몰나도 대부분이 업동을목전에두고 과연 무사히 어떠하게될는지 또 종래의 생활근거지를 떠러저 헐니가게된다면 이얼마나 대청진의 고망지못한 은데이라 일반은 문제의추이에 크게주목한다고한다

雄基港의洪水被害

浸水四百七十戶

原因은排水設備不完

【淸津】지난이십일일의 폭우로 인하야 일즉이보지못하든 대홍수를이루어 일시수라장을 만들고잇든 웅기(雄基)시내의 피해액은 그동안에 판명된것만이

浸水家屋 四六八戶

倒潰家屋 四戶

流失家屋 一戶

에달한다는데 수재의원인은 송평동(松坪洞) 일대의 배수설비(排水設備)가 불충분한 탓이라한다

統營에수敎會員動員

救濟金品을募集

衣類現金多數寄託

【統營】통영야소교회 (統營耶蘇敎會)에서는 지난십일부터 소년소녀가 총동원하야 교인들을 일일히 방문하고 의류와 현금을 모집하엿는데 [illegible] 사천진명녀자야학교 (勤明女子夜學校)생도 일동으로 사원오십오 오십오전 [illegible] 십육원 오십전의 [illegible] 현금오십오원과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에서 [illegible] 백륙십오원을 모집하엿스며 면려소년회(勉勵少年會)에서 사십 영지국에 기탁하엿다 한다

發展大海州의表徵

第二期築港遂實現

總工事費用八十八萬圓을드려

廿九日起工式擧行

【海州】산업왕국 황해도의관문이며 약진하는 대해주의 "심볼"인 해주항(海州港)의 제이기확장공사(第二期築港擴張工事)는 여정과가티 지난이십구일 백륙십만도민의 환호리에 경기(京畿)평남북(平南北)도의 관계유지를 비롯하야 황해도내 관민유력자 삼백여명참석아래 열리여 선홍 해주항(海州港)에서성대히 축복하면서 성대히 무사히 마치엇다

이 해주항제이기공사(海州港第二期築港擴張工事)의개요를보면 국비(國費)사십사만원과 도비(道費)사십사만원합게 팔십팔만원으로 종래의계선안벽(繫船岸壁)에 접속하야 연장이백오십미돌의 『계선안벽』을 만들어 발동기선(發動機船)의 하물운반에 편리케하며 다시 도비 십륙만원을 드려『선류』에 연장오십오미돌의 간종돌을 준설하야 삼천톤급선 (汽船)두척을 일시에 대일수잇도록 설비하며 선류(船溜)에접하야 연장 구십미돌의 계단(階段)의 하물(荷物)을 끄러올리는곳과 연장륙십미돌의을종하물을 끄러올리는곳과 잇여자의 백이십미돌의 돌제부호안(突堤付護岸)을 축조하며 면옥 현재의 매립시(埋立地)에 접속하야 충면적 륙만평방미돌을 매립하야 그중 도로(道路)에 만입후천내 편방미돌을 축조하야 거즉 창고(倉庫)하치장(荷置場)등으로 쓰게하리라한다

守山支局後援의

水害救濟素人劇

陰八月十七日을期하야

【守山】 [illegible] 수해에는 [illegible] 본보 [illegible] 의눈물을금치못하게할이지음 팔 [illegible] 양군수산청년회(守山靑年會)에서 는 동정의뜻을표하기위하야 합 예주리고 옷에 [illegible] 동포를구제하자는 표어하에 수산창고에서 소인극(素人劇)의 [illegible] 발동계 [illegible] 한다는바 지방의 [illegible] 는 논구[illegible]를론하고 [illegible]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咸興府民赤誠

【咸興】함흥부청사회계에서는지난이십오일까지남조선동수해이재민구제금을모집하고 [illegible] [illegible]

博川天主敎會赤誠

【博川】박천천주교회청년들은 수해에우는 동포를위하야 현금사원오십전을 수해민에게 보내달라는 [illegible]

[illegible] 남조선 강원도(江原道)에 [illegible] 경북(慶北)에 사포(包)를 각히 발송하얏는데 전부 모집된 총액은 현금 이천사백팔십일원 의류(衣類)칠천백십사점 (衣類)가 일천백입점 [illegible] 륙백륙십오점의 다수에 달하야 함흥부민의 따뜻한 인정미의 발로에는 세상을 감격케 마지안는다。

蟹幕에火神發動

三母子燒死

開城府外蓮洞里慘禍

【開城】부외상도면 련동리 (府外上道面蓮洞里) 륙십오번지 김씨(金氏)란과부는 어들되는 강점(姜點)강규(康奎)의 [illegible] 부터 동리전변에다 거막을지여 노코 밤이면 거적집고 낮이면 장에가다팔어 겨우 구명도생해 오든 가여운 삼모자엿는바 지난이십이일밤 열한시경 이막속에서 삼모자가 곤히자든중 그 [illegible] 는 [illegible] 되자 [illegible] 불은 [illegible] 을 [illegible] 나오지못하채 무참하소사하고 말엇다하며 위급의발의 화염속에서 겨우헤여나온 김씨와강규도 화상을 몸시입어 생명이 위태에 빠젓다한다

同情金品遝至

本社淸津支局에

【淸津】남조선수해이재민에게보내달라는 수제의연금품이 본사청진지국에 답지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일에도 다음과가튼 구휼에에 가득찬동정금품을 가저왓다

普賢寺에서

衣服百餘件

시내 북성정(北星町)에잇는보현사(普賢寺)에서는 교도의집을방문하고 의복을 거두어 모은것 백여점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한재지에 보내달라고 본보청진지국에 위탁하엿다

康熙謙氏가 現金과衣類를

부내포항동일음음 소매시장에서 [illegible] 강희겸(康熙謙)씨는 [illegible] 현금 [illegible] 과 의복을 [illegible] 지국을차저와서 위탁하엿다

이번수해에도 [illegible] 해를보앗슴에 불구하고 재민을 에게식량을공급하며 동정을 [illegible] 원직에 도로복구공사를 식히는 데손수갈독지휘하고잇다한다

新昌、新浦를風靡

漁船被害二百隻

埋築地棧橋被害莫大

【咸興】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부터 동일오후열한시까지의대폭풍우로인하야 신창(新昌)신포(新浦)의 두어항에는 상당한피해를 끼치엇다 신창항(新昌港)에는 신축 방파제(防波堤)를 근열자나 풍랑(風浪)이너머 게류(繫留)하얏든 어선 이백척이 서로충돌되여 모다 파손되엿고 등으로 어민들은 숙히시설비 싸아두엇든 온유비(鰮油肥)가일 할바린다한다

백사십이관(貫)이나 류실되엿나 신포(新浦)항에는 수산회(水産會)지부의 사명소유의 왕구미(王口味)매립지 오개소가류실(流失)되엿스며 또동항의 잔교(棧橋)가 오개소나 파손되엿는데 항모다 시설물중분으로 사소한 풍랑에도 이와가튼 피해를 바더천조유의 아동예술의호회진을 일우고동시서반 무사산회하얏다 한다

무리사변치웅(遊戲園)씨의 개회사가잇은후 순서를진행하엿는바 천진란만한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래와 어엽븐동작은 수백관중을 열광케햇고 『내아들』『내딸』의자랑으로 수만흔어머님의얼굴에 우슴이 충만케하야 실로

二千工場加入

肝油製造組創立

【西湖津】함남 서호진에 잇는 간유제조공장은이십여개소를 합동하야 간유제조조합 (肝油製造組合)을 창립하고 지난 이십[illegible]일에 서호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엿다 이로써조합어업조합련합회가 창립이후 신제안으로 종래제조업자는 설비와규모가 불충분한 관계로 게회적고업을 할수업다는 리유하에 련합에서는 거액을투자하야 대규모로 제조를 하게하리라하며 문집가격등도통제하야 유리케하리라는계획하에 오십삼명의 제조업자를소집하고 일일히 내안을보고한후 리사의장을서호 어조 리사석경(石井)씨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서과채용문제로 론의가분분하다가 필경시간관계로 결정을못보고 위원에게 일임하고 해산하엿는데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갓다

組合長李鳳雲 監事李弘柱 崔鳳泰 金秉鎬

問題의昭和水組

復活運動具體化

安州邑에서創立委員會開催

地主同意도거이어더

【立石】문제의 소화수리조합(昭和水利組合)부활운동을 그후 극히 맹렬히가속되 세상사람으로 하여금 크나큰 흥미를 갓게되고 금번의 한재로 말미아마 더 바 안주 김연옥(金仁玉)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문제의 소화수리조합은 그 운동이 그동안 정돈되엿든것입니다 금번과가튼 한발의 피해가 심하여진이때 그필요를 늣기는바는 일반과 다가티 당한일이라고 밋습니다 여하튼 금번에는 긔필코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전번에도 반대한 리유가 여러가지가 잇겟지오만 그중에도 조합창 봉납율 년、륙

년전 지주가로 부적당한 곳이 잇어 반대당하엿다

안주읍(安州邑)회의실에서 련시 소화수리조합창립위원회 (昭和水利組合創立委員會)를 열리라는 바 안주 김연옥(金仁玉)씨는 다 그러고 도 사무소 위치문제로 안주(安州)와 숙천(肅川)이 대립되여 다란이 잇지안홀가 하는생각도 일반으로 업지안홀것이나 역시 이제는 속히 실현을봐야 되겟다는 생각에 있서서 또는 당국의 의견도 층분하잇슬터이니까 그리위치문제도 실현에 난관은 업스리라고 밋습니다』하며 십분자신잇는그대가 잇슴을 엿볼수가 잇섯다

천팔백원을 주겟다고하니 일변동안말엇고 번것을 생각할때 정신이 아득햇습니다 그리고 또

地方學校運動會

▲平壤本願寺附屬幼稚園 十月一日

▲咸興高普 十月一日

▲咸興永興 十月四日

地方人事

▲崔永鎬氏(本社咸興支局長) 同

▲柳方子氏(咸興府會議員) 同

▲木村政七氏(前藥州警司法係主任) 大邱警察部轉任 上

▲金再湧氏(淸津府廳勤務) 新任人事次 本社淸津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堤川支局

位置 堤川郡邑內

支局長 趙命龜

神恩販賣所

位置 高陽郡恩平面佛光里

主任 高永直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謹告

慶興支局

記者 崔達吉

同 金錫慶

右新任

扶安支局

記者 朴英達

右新任

牙山支局

仙掌分局長 崔東觀

右新任

槐山支局

牧渡分局長 池相國

右新任

江西支局

甑山分局長 康禮燮

右新任

支石分局

位置 伊川郡支石市

分局長 黃世德

新乶坡分局

位置 咸南三水郡新乶坡鎭

分局長 許得洙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新京支局

位置 新京永樂町三丁目一七

溫泉鍾

右任支局長

支局長 金[illegible]烈

右依願解任

天安支局

位置 天安郡邑內

尹吉淳

右任支局長

支局長 申泰華

右依願解任

洪原支局

位置 咸南洪原郡邑內

崔浩鳳

右任支局長

支局長 白今用

右解任

南市支局

位置 平北南市

李光世

右任支局長

支局長 張奎泰

右解任

車輦館支局

位置 京義線車輦館驛前

黃昌淵

右任支局長

支局長 鄭[illegible]源

右解任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illegible]支局

位置 [illegible]

支局長 金[illegible]

富用支局

位置 [illegible]

支局長 金[illegible]

潭陽支局

位置 潭陽郡邑內

支局長 韓[illegible]

興水支局

位置 京義線興水驛前

支局長 李[illegible]

珍島支局

位置 [illegible]邑內

支局長 曺克煥

延安支局

記者 崔[illegible]建

同 洪淳甲

寫眞班記者 李[illegible]浩

右依願解任

記者 全慶來

寫眞班記者 崔德壽

顧問 片富烈

同 張命昌

右新任

開城支局

電話 四五四番

陝川支局

總務兼記者 吳[illegible]根

右新任

新義州支局

移轉位置 新義州府老松町四

永安支局

記者 金自[illegible]

寫眞班記者 林仲[illegible]

右新任

全州支局

助村分局長 金[illegible]

鳳東分局長 李元[illegible]

記者 李[illegible]

右新任

原州支局

寫眞班記者 李[illegible]承

右新任

古城支局

總務兼記者 金[illegible]

右新任

彥陽支局

總務兼記者 金且浩

記者 申[illegible]文

記者 李[illegible]

右新任

新京支局

[illegible]

右新任

安城支局

孔道分局長 [illegible]

右新任

稷溪支局

[illegible]分局長 朴[illegible]

右新任

黃州支局

記者 元[illegible]

右新任

新市支局

塔洞分局長 元[illegible]

右新任

塔洞分局長 元[illegible]

右解任

羅津支局

總務兼記者 朱[illegible]

右新任

安東支局

總務兼記者 [illegible]

右新任

晋州支局

電話 三三一番

右架設

晋州支局

南文山分局長 鄭永[illegible]

鷄山分局長 許[illegible]

右新任

間島支局

[illegible]分局長 朴[illegible]

右新任

奉天支局

北陵分局長 朴[illegible]

右新任

咸興支局

[illegible]分局長 [illegible]

右新任

富川支局

[illegible]分局長 金一[illegible]

右新任

珍島支局

總務兼記者 曺[illegible]淸

記者 曺[illegible]

右新任

檀里支局

[illegible] 李[illegible]

同 安[illegible]

右新任

金浦支局

記者 李[illegible]

右新任

釜山支局

[illegible]分局長 [illegible]

右新任

平澤 中朝鮮軟式野球大會

▲時日 十月三、四兩日間

▲場所 平澤野球場

◇主催 平澤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澤支局

淸津 北朝鮮籠球大會

▲時日 十月十一日(日)午前九時

▲場所 淸德普通學校球場

◇主催 朝鮮日報社淸津支局

◇後援 淸津體育會

鏡城 第一回咸北少年蹴球大會

▲時日 十月三、四日兩日間

▲場所 烏東明義塾運動場

◇選手資格 身長五尺二寸以下少年에限함

◇主催 朝鮮日報鏡城支局

元山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十月一、二兩日

▲場所 元山中里二洞海面埋立地

◇主催 大元倶樂部

◇後援 朝鮮日報社元山支局

守山 水害救濟素人劇

▲時日 陰八月十八日午後八時

▲場所 守山倉庫

◇主催 守山靑年會

◇後援 朝鮮日報守山支局

弗·法·磅의關係
資金急激還歸難期

法貨가 二割五分 乃至 三割四分 切下되다고하면 英米佛三國間의 爲替레이트는 엇지되는가

一、米佛爲替 이것은 相互間 金으로 링크되며 現在의 米佛爲替平價는 六仙六三三五인데 이것은 四仙三五 乃至 四仙九六이된다。

一、英佛爲替 廿五日現在의 金現市勢(六磅十七志九片半)로 計算하면 英佛레이트는 一〇二法三七 乃至 一一六法六이된다 廿五日現在의 英佛爲替는 七六法四三이다 그런데 英國은 金本位를 離脫하고잇슴으로 平價라는것은 存在하지안라 그리고 英佛레이트의 安定點을 定하야할 必要가잇스며 이에對하야 어떠한 諒解가되어잇슬려이다。佛國의半官的大通信社인 하바스通信에依하면 一〇〇法으로 安定하기로되엿다고 傳한다)

一、英米爲替 兩國의 對佛安定點이 不明하기때문에 英米爲替의 安定點도 不明하다。假令 法平價가 二割五分 乃至 三割四分切下되고 또英佛레이트가 一〇〇으로安定된다고 假定하면 英米크로스는 四弗三五仙 乃至 四弗九六仙이된다

勿論 以上은 單只 計算이며 三國協定의 內容이 明示되지안흔限 確實한것은 모른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磅이 非常한 割高이던것은 事實임으로 英米크로스安定도 現在보다 相當히 低位일것은 想像하기에 어렵지안라 東實磅은 이때까지 資本의 對英逃避關係로 非常히 騰貴(法及弗에對하야) 하엿슴으로 外資의 引上과共히 今後내릴것은 自然의勢이다。

×

平價切下에 依하야 法貨가 安定된다고하면 이때까지 海外에 逃避되어잇는 資金은本國에 도라올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얼마나될것인가 그것에對하야는 于先 얼마만한資金이 外國에 逃避되어잇느냐 하는것을 보는것이 조흘것이다

佛蘭西銀行이 金을 第一만히 가지고잇든것은 一九三二年十二月一日의 八百三十三億六千萬法으로 그것이 去九月十八日에는 五百三十六億九千萬法(現在는 더 減少되어슬것)으로되엿다 即三百六億七千萬法의 減少이다 그中에는 貿易入超 그他의支拂을 한것과 國內에 退藏되어잇는것도 잇겟스나 大部分은 資本의 對外逃避를 代表하는것이다。

昨年中에 佛國으로부터 米國에 流出된 資金은九億三千四百二十四萬三千弗、今年에드러와서도 六月末까지에 三億二千四百〇五萬一千弗에 오르고잇다 또 佛國의 對米投資總額은 昨年末現在로 長期資本만도 二億八千二百萬弗에 達하얏다

勿論 이것만의 資金이 急히 本國으로 도라온다고는 볼수업겟스나 할ㅣ스에서는 今年末까지의 歸還은 大體 四億弗가량이될것이라한다 如何間 米國의 證券界等에는 한惡材料가될것이다。

또英國에도 佛國의 資本이逃避되어잇다 特히 佛國으로부터 英國에의 資金流入은 米國처럼 巨額은아니나다 昨年中의 佛國으로부터의 金流入은 約一億四千二百十二萬七千磅으로 今年六月까지의 流入額은 七千三百二十萬二千磅이다 그外에 英蘭銀行券等에 잇는 佛國의 손에 드러가고잇다 그리고 資金의 逃避高라하드래도 米國으로부터의 그것보다 만치는안흘것이나 가령 少額이라하야도 이 還流에 依하야 磅貨의低落이 誘發될것은 豫想되는일이다

世界各國金本位停止年代表

一九二九年以降 世界各國에서 金本位停止의 歷史를 보면 如左하다。

◀우루과이 一九二九年十二月十六日
◀아젠친 同年同月十六日
◀墨西哥 一九三一年七月二十五日
◀뉴질랜드 同年九月二十一日
◀콜롬비아 同上
◀英國 同上
◀파레스타인 同上
◀印度 同上
◀英領마레 同上
◀埃及 同上
◀볼리비아 一九三一年九月二十五日
◀愛蘭自由國 同年同月二十六日
◀[illegible] 同年同月二十九日
◀[illegible] 同上
◀[illegible] 同上
◀[illegible] 同年十月八日
◀日本 一九三一年十二月十三日
◀葡萄牙 同年同月卅一日
◀에쿠아돌 一九三二年二月九日
◀智利 同年四月二十日
◀希臘 同年同月廿六日
◀暹羅 同年五月十一日
◀페루 同年同月十八日
◀南阿聯邦 同年十二月二十八日
◀米國 一九三三年三月六日
◀오스트리아 同年四月五日
◀에스트니아 同年六月二十八日
◀白耳義 一九三五年三月三十日
◀딴지히 同年五月二日

長期貸利下로 普銀苦境倍加
商業金融도强制利下難免
二重三重의惡材料

殖銀 東拓의 長期貸金利의再利下는 十月一日부터 實施되는데 그利下에依하야 가장 影響을 바들것은 地元乙種銀行으로 乙銀의 不動產金融은 金利의低下에依하야 全혀 妙味를 減殺하는外에 長期貸金利의 低下의 重壓에依하야 一般商業金融金利도 强制的으로 低下되지안흘수업다 即 殖銀 東拓은 資金코스트가 顯著히 低下되고잇슴으로 貸出金利의 低下는 그다지 犧牲이아니나 一方 乙銀으로서는 預金金利의 低下는어도預金金利가 벌서 限度에 達하야 預金의 逃避가 되고잇슴으로 乙銀自體로서는 二重三重의 惡材料가 續出되고잇는만큼 乙銀의 苦境은 一層 拍車를 加하게되엿다

米收穫豫想
凶作이나意外數字?
一日이나二日發表

大風水害로 食糧供給이 圓滑치못할것이 念慮되고 또一方에는 日本內地의 豐作으로 自治管理法의 發動說이 잇는때에 새로운 調査方式에 依하야 從來보다增產을보리라는 豫想이 可能하야 內外挾攻을 밧고잇는感이 不無한 朝鮮米의 今年生產高 如何는 各方面으로 注意가 기픈中 今秋稻作 第一回收穫豫想은 去二十日現在 調査에 依하야 三十日을 期限으로 各道에서 收穫豫想石數의 電報가 農產課에 들어오고잇서 그集計數字가 二日 或三日에는 發表될터인데 이것은 特히 朝鮮農家를 爲하야 影響이 큰것으로 더욱 注目되고잇다 그런데 朝鮮米의 生產高는 作付面積의 增加와 施肥品種改良 其他의 農事改良으로 全般的으로는 收穫量이 增加하야 最高一千九百萬石에까지 갓섯고 또 最近에는 一千七、八百萬石程度에 잇스나 反當收量으로보면 아직 一石五、六斗의 程度로 明治四十三年에 七斗三升九合이든것이 昭和二年에가서야 겨우 一石八合에이르러 一石臺를 保持케된 點으로보아도 反當生產量이 그리增大치못한것은 收穫調査가 不充分하엿든것으로 볼點이잇섯거니와 今般에는 指導員二百二十名에 調査員一萬九千百二十八名이란 多數人員을 出動식히어 作付面積에對하여 上中下의 等級을附하야 坪當收穫調査로 綿密한調査를하게 되는만큼、當然히 從來보다는 數倍의 增加된收穫量을 보이리라고 豫想되고잇섯다 그러나 今年은 風水害로 從來數字보다 一割以上減을 보리라고觀測되기는 하면서도 調査增量은 平年作에 達하리라는 觀測이 有力하엿든때、九月初부터 慶南에 發生하든 稻熱病이 中旬頃에는 全朝鮮的으로 發生하야 一層減收를 보리라고憂慮되고잇다 特히 今般것은 穗頸稻熱病이라하야 이삭(穗)의 벼대(莖)組織을 破壞하는者로稔實이稀하여 減收되는것임으로作況에는크게影響이 미치리라는것이다 그래서 農產課一部에서는 今般第一回豫想이 어떠면從來의 平年作의 數量에 未及하는程度에 이르지안흘까하는 念慮조차잇다

荷動好調豫想

鐵道局十月上旬의 出貨豫想은 全般的으로 所謂繁忙期 輸送의 序幕으로서의 期待에 틀님이업시 石炭、木材、建材、季節雜貨의 荷動好調를 示하여 豫想以上 成果를어덧다 그리고 今旬도 依然히 動堅調로 石炭의 出貨가 더욱 活潑하야 木材、建材等石類도 相當히 荷動이 好況을持續 豫想數量은 平均增率一、三六八率 合計二萬六千七百噸의 輸送을 目標로 本計畫을 樹立하엿다한다

南朝鮮配電統制
二十一社를四社에合倂認可
十月一日一齊合同

累報=南朝鮮六道에 잇는 三十一個所의 配電會社를 合同시킬前提로 그第一段의 統制로 六社로 맨들고저 三個의 小會社를 大興電氣 大田電氣 木浦電燈及天安電燈等에 合同시키기로되야 今年봄以來關係會社사이에서 協議를 해왓든바 京畿道安城의城南電燈의 一社를 除한外에는全部 圓滿히 協議가 綜合되엿다 그래서 이合倂認可를 總督府에 申請中이든바 모다 九月二十八日附로 認可되여 十月一日을期하야 一齊히 合同을 實行하게 되로되엿다

이밖에 南朝鮮水力電氣會社는 發電會社인 關係上 配電統制에는參加치안코 朝鮮電力에 合同하기로되엿스며 又江陵電氣會社는 江原道의 東海岸地方은 朝鮮電力의 當地供給으로서 直接同社로부터 配給시키는것이 適當하기때문에 朝鮮電力에 合同하기로되엿다

이번에 實現된 南朝鮮電氣統制의 第一段인 二十一社의 合同은다음과 가튼데 大興電氣에十社 大田電氣에二社 木浦電燈에四社 天安電氣에 五社가 各其 合同되엿다

合同의主體로된會社와吸收合同할會社는 如左하다

◀朝鮮瓦斯電氣(釜山에)無
◀大興電氣(大邱)에 盈德電氣 九龍浦電氣 甘浦電氣(以上은慶北) 南山電氣 河東電氣 巨濟電氣(以上은慶南) 濟州電氣(以上은全南) 麗水電氣 順天電氣 筏橋電氣 計十會社
◀大田電氣(大田)에公州電氣(忠南) 利長電氣(京畿) 計二會社
◀南朝鮮電氣(群山)에無
◀木浦電燈(木浦)에昭和電氣 寶城電氣 羌島電氣 長興電氣(以上은全南) 計四會社
◀天安電燈(天安)에忠南電氣 溫陽電氣 大川電氣 瑞山電氣(以上은忠南) 平澤電氣(京畿) 計五會社

以上과 가티 第一次合同이된다음에는 第二段의 統制로서 六社가 合同을하게될터인데 이것도 各社의 當事者間에서 方今圓滿히 協議가되여가는中이므로 不遠에 實現되리라한다

咸南配電도 統制完成
合同電氣認可

咸南合同電氣會社도 認可를 申請中이든바 二十八日附로 認可의 指令이나왓스므로 十月一日로서 合同을 實行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咸南의 配電事業統制는 完成을 보게되엿세음이다 咸南合同電氣會社는 舊元山水力電氣를 主體로하야 咸北鮮電力 咸南電氣及 北靑電燈의 三會社를 吸收合倂하야 昭和九年十一月一日에 成立한것인데 當時에 아즉 參加하지 아햇든 大興電氣 咸興支店도 지난번 咸南合同에 讓渡하기로되여 圓滿히 合同된것이엿다한다

經濟界消息

○朝鮮窯業=朝鮮窯業株式會社는 興南石灰窯素工場의 粒狀石灰窯築은 十一月一日부터 着手하기로 決定하고 三十日 一切의 準備를하얏다고

○貿易調査會=朝鮮貿易協會에서는 六日午前十一時부터 商工獎勵館에서 理事會를 開催하고 一、貿易振興展覽會에 關한件 一、貿易座談並 講演會開催에 關한件 一、會員加入者承認의件을 協議하리라고

下旬貿易 出超轉換
三千五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九月下旬對外貿易狀況은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九六、五二九
輸入 六一、〇二九
合計 一五七、五一八
出超 三五、五〇〇

經洛寸鉄

○東拓、殖銀은 長期貸利下해도 배ㅅ속이、便하니까 斷行하엿지만 이影響이 普銀에、波及되리라니 弱者의 處地란 이런法?

○凶作에 不拘코 新調査때문에 米收穫豫想은 意外의 多收穫으로 發表되리라나 此所謂 內貧外富格이냐?

○南朝鮮配電統制는 十月一日부터 二十一의 小會社를 四社에 合同케 되엿다고 日本內地서 떠드는 電力統制도 朝鮮가트면 問題업슬것이라 해둔가

法貨切下率
一割九分으로決定

【巴里廿九日發同盟】佛國政府는 新通貨法案에잇서서 法貨를 二割五分九厘三毛 乃至 三割四分三厘六毛로 切下하기를 提言하얏는데 法案成立이되면 政府令에依하야 一割九分으로 切下하기로 大體決定되엿다한다 右結果 一弗二二法 換言하면 一法 四仙七一이된다

瑞西切下率
英米佛大國보다 一割안으로決定

【伯林廿九日發同盟】西瑞聯邦上院은 二十九日午前閣會하고 法貨平價切下에 對應한 方針을協議한 結果 西瑞法切下率은 英米佛諸國通貨의 引下率보다 一割가량안으로 決定하엿다 右에對하야 會議終了後 大藏大臣左와如한說明書가 發表되엿다

一、西瑞政府는 諸大國의 通貨政策에 順應하야 西瑞法의價値를 切下하야 그切下率은大國側의 一割가량안으로한다
一、瑞西法은 依然 金本位를維持한다
一、磅弗과 佛國法이 金을 基礎로하야 維持되여잇는 境遇에 限하야 瑞西法도 此等通貨와 連繫한다

三國協定에 參加를希望
米財務長官言明

【華盛頓廿九日發同盟】法貨切下에 關한 英米佛三國의 共同宣言에 對하야 모ㅣ겐도ㅣ財務長官은 左와如히 言明하얏다

一、新協定에는 何等秘密條項을 包含하지안코 또磅貨와 佛貨間에 秘密的協定은 全然업다
一、右協定에 各國政府가 參加하기를 要望한다

右는 當該國이 通貨安定基金을 保有하지아ㅎ어도 協定參加에는 조금도 限害가업다 右모ㅣ겐도ㅣ長官의 要望에 獨伊瑞三國政府는 自國의 關係上 곳協定에 參加지안흘것으로 보인다한다

『오스트리아도』
英磅에連繫

【윈ㅣ二十九日發同盟】墺國代表新聞노이에제라、파레스의 二十九日報道에 依하면 墺國政府는 留後 墺國 시링 貨를 英磅에 린크하기로決定하얏다 佛國의 新通貨政策이 齎來한 國際的影響에 伴한 시링調整에 着手할것으로보인다

和蘭은 切下안켓다
首相上院에서言明

【헤ㅣ그廿九日發同盟】和蘭首相코리인博士는 廿九日午後 上院에서 和蘭의 新通貨政策을 闡明하고 如左히 말하엿다。

和蘭國立銀行의 金準備高는 充分함에 法貨의 切下에 依한 國際情勢에 鑑하야 和蘭政府는 金本位制를 停止하지안흘수업게되엿다。그러나 和蘭政府는 現行通貨法의 改正을 企圖하지안는다 換言하면 和蘭政府는 法律的으로 平價切下를 企圖하지안는터이다。現在의 情勢로 切下를 斷行하는것은 穩當한 處置가 아니다

人氣다시氣迷
十月市勢如何

滿洲、金輸出問題、日中事件險惡으로 마바라崩落의 玉整理가 進行되엇스니 인푸레를豫想하는 逆向買物로 보이엇섯는데 昨前場東京東新百三十八圓七十錢을 高價로 尻實物이잇서 鐘軍伸惱이오 新甫形勢를보는모양인데 內外諸事情이 株式의安心買를 招致할수업고 東新은天갑으로는 上壽命이잇다하겟스나 그 市勢의行動은 이미老境에 入한觀도 不無하것가타보는 便도잇서 投機株流行이 果然어느程度로잇슬지 疑問視되는터이다。다만不安材料 全部出盡이라 樓下의惡化는업드래도 順調압上勢도어려울것갓다하야 氣迷濃厚이엇다

秋冬市勢는 波瀾激甚?

內外諸事情으로보아 今後의株

商況 【三十日】
株式 掉尾一振 突高

前場伸惱 前場은强調寄付이엇스나 東新百三十七圓八十錢을 高價로大引、鐘紡新百七十四圓二十錢、日產八十一圓六十錢 日產新二十九圓丁 朝新三十六圓六十錢 安取七圓七十錢이엇섯다

後場突高 後場은下旬貿易三千五百萬圓 出超好感으로 연시東京東新은 依然鞘軍이엇스나 大阪高로 諸株月末掉尾高이엇스니 東新百三十九圓十錢 大新七十二圓五十錢 日產八十二圓六十錢 朝取八十九圓丁 朝新三十六圓五十錢에 好勢大引이엇다

六感

株……不安材料總出에도버티기에 投機株中心의 一高가期待되엇더니 다시買氣不續으로 인푸레市勢에 重點을두는모양이나 鐘軍▲强氣는 어듸까지 인푸레 弱氣는 이미老境에 入하얏다고主張▲天井을 지으면 底入까지 底入되면 天井을 지을때까지 市勢는 한길을 것게된다는 點으로보면 인푸레期待도 可하지만▲內外諸情勢가 人氣를 迷逕케하니걱정

米……那覇南南東海上에 잇는 百三十粍의 颱風은 오도가도 아니하고 거의 停滯한 모양▲只今의 現象으로는 北北西로 움지기는 모양이나 境遇에 依하야는 北東으로 轉向되지도 亦未知이라고 何如間 消滅되지안흐면 朝鮮이나 日本內地를 作戰할形勢▲그런데 今朝는 颱風市勢가 展開되는듯 하엿스나 結局은 시세부치▲此邊의 反撥이 中間呼吸인 底固鍛練인지는 모르나 賣方의 躊躇가 買方의 活躍으로 轉換되는 機이 不無 新甫十二限의 發會나 기다려보자

今日財界 (三十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東京正米 / 朝鮮白米 百斤 / 正租(仁川)一等 一叭 / 一斤價 三等 … [illegible]
◆金 市中金塊價 … [illegible]
◆株 朝鮮新 / 東新 / 日產 / 大阪株式 / 大阪人絹 / 大阪綿花 / 大阪綿糸 / 고무FAQ … [illegible]

1、法貨平價切下는 業界의 好市勢를 式은 인푸레期待의 氣迷混亂이나 또는 다시 十月을마지하야 重觀되는터인데

의 觀測으로서 今後의 國際的 動向如何로는 日本에도 큰氣迷材料이 影響이 잇는만큼 큰

2、電力問題는 國家的으로 外資大化할 念慮가 잇스며

3、增稅案도 最初의 豫想과는 相違하야 賦課方法과 稅率이 各層을 通하야 大大的美濃이 잇슴으로 議會의 紛爭이오

4、日中問題는 通常의 外交手段으로는 解決이 困難할것가라야 所謂最惡의 境遇를豫想하는氣分이 濃厚하다

以上에依하야 市勢는비록八個月間의洗鍊을바닷다하나 順調로서 進할것가지안코 秋冬市勢는 인푸레期待가或은버긋나고 深甚한氣迷에싸이어 波瀾이잇는바 其間對中關係와米事情變化로 不斷한刺載을바들뿐아니라 貿易狀態、金融狀態、統制問題等多數한材料에依하야 錯綜한것이오며 複雜한 波瀾이잇슬것이라는말이잇다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內國債는 小康狀態이오 四分利의 十錢低에對하야 三分半은 十錢引締어오 米貨債는 小締와 課稅不安으로 處分賣物이만허 六分半二十錢低이나마 五分半一圓二十錢續落이엇다

▲甲五分利一〇〇五五 ▲一回四分利 ▲佛貨四分利 …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五三 ▲第三 …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東京電話同盟】▲日本曹達新 ▲石川島造船 ▲浦賀船渠 ▲에라 ▲파이新 ▲朝鮮製鍊 ▲北樺太鑛業 ▲도레지 ▲日本스테인레스 ▲石川島新 ▲라사工業 ▲合同拔鐵 ▲帝麻新 (取引高 … 枚) [illegible]

期米 平穩裡에 納會

前場頭重 昨後場阪地二十九圓九十五錢止와 共히二十七圓八十五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今後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〇一錢이든바 十四高로 二十七圓九十九錢인 十四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三節 〇八錢으로 〇二錢까지 下押하엿서 三節〇一錢으로 七圓九十二錢까지 反落하드니 阪地〇九錢의 三番同價로 止場하얏다 結局 八十九錢에 納會되엿다

颱風進路注目
北北西? 北東?

昨日부터各地市勢는 那覇南의 南南東三百키로海上에잇는 颱風을 念慮하야 隱然中行動을 加하더니 今朝는 買氣又一層 緊然하야 東阪兩地는 三十圓大臺를 突破하고 當地는 二十八圓臺를 突破하엿다 果然此颱風의 進路가 如何히 轉換될것인가?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한바에 依하면 如左

蒙古滿洲에잇는 高氣壓은 日本海에 빼치어 中國과 滿洲及朝鮮은 各地共히 晴天이오 江陵、元山、中江鎭만은 曇天이며 또 小笠原島方面에 高氣壓이 잇서 本州의 東方海上은 氣壓의 谷이되어 北道는 降雨、關東地方에서 四國에 일으기까지의 海岸地方은 一體時雨이나 本邦及日本海岸은 晴天이다 颱風은 昨夜頃에 七三〇미리로 發達되어 那覇南東約三百키로 沖에서 殆히 停滯되어 南西諸島는 陰險한모양인데 大體北北西로 進行한後 北東으로轉向되지안흘가하는 觀測인데 朝鮮은 直接影響이 업슬듯하나 二、三日의 動靜을 보지안코는 確知키難함으로 注意를要할바이라고

新甫發會豫想
一、二十丁下輔?

明一日에 發會될新甫十二月限은 十一限과同樣으로 米穀定期의 終末을 告하게되는限月인만치 거의 同輔인 一、二十丁下輔說이 多하다 그런데 一部의觀測은 本年은 朝鮮이凶作임으로 阪地其他市場의 下輔임에도 不拘하고 反히上輔로 發會되지안흘가 하는說도업지 아니하며 又는市勢의 大體形勢가 底入을내엇다고볼수잇슴으로 下輔實은警戒할時期이라는 說도잇다 그러나 豪派는此에對하야 下輔發會後의 瓦落은마치알수업스나 所謂底入鍛練의日이라는 格言이업지아니한만큼 此邊에서 下輔發會한後 卽時單騰하지는못할것이라고한다 그러나 二、三日注意를要하지아니면 아니될 颱風이 一大材料가되어 잇슴으로 此颱風의 進路如何에依하야 新甫의 發會가左右되지안할가한다

各地新甫輔豫想

仁川、大阪、東京、名古屋、下關、京都、釜山、大邱는各二十丁乃至三十丁下輔 群山과木浦는各二十丁下輔豫想이다

○米取協議會=第八回全朝鮮取引所事務協議會는 十月十一日大邱米取樓上에서開催하고 閉會後 慶州等視察하리라한다

施政記念日에 各地米取立會

十月一日의 施政記念日當日 朝鮮內各地米穀取引所의 立會는如左하다

朝取 前後場 立會
群山 前場만 立會
木浦 前後場 立會
大邱 前場만 立會
釜山 前場만 立會

市場休會一束

今日은 月末關係로 東京福井人絹은 各前後場休會이고 各地期米市場은 後場休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 [illegible]

各地正米

堂島前場賣買 ◆賣方=地場玄人、東京筋 ◆買方=… [illegible]

京城軟化 강如何로는相當한賣氣로 … 傍觀이다 ●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少顯 … 想待로 傍觀이잇스나 … ●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三三、三〇

釜山沈靜 賣方이專혀 收藏 … 傍觀하고 市場은 全혀休商同樣의 閑散場面에 陷하엿다 ●三等二九、五〇 四等二九、二〇 一等白米 三三、九〇

群山堅調 定期反撥을天고 十錢高氣配이나 賣買寥寥 … 一等白米 三三、二五 四等二九、〇〇

木浦强堅 一般이補月待로 傍觀人氣이나마 期米의好調를 伴하야 市況은高配이다 ●三等二九、二〇 四 一等白米 三三、三〇 四等二九、〇〇 一等

大邱同調 … [illegible]

開店案內

伏惟仲秋 尊體萬福하심을 慶祝하오며 就悚今般三和株式現物店을 設立하옵고 十月一日부터 開業하온바 刷新合理的經濟下에 專혀 本位로 誠實奉仕하겟사오니 格別眷愛하여 주심을伏願하오며 爲先紙上으로써 案內하옵나이다

昭和十一年十月一日

三和株式現物店 店主 支配人

營業所 京城府仁寺町二五六 電話光化門③長七四五番 一九九六番 二九四六番

白森古金金秦鎬白 / 永常市 元海 / 正 一專 棋 / 基陸治基旭郎一淳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米株 益 金益商店 仁川 京城

期米 福 吉村榮左エ門商店

(金融·商品·株式·期米 市況表 [illegible])